

리아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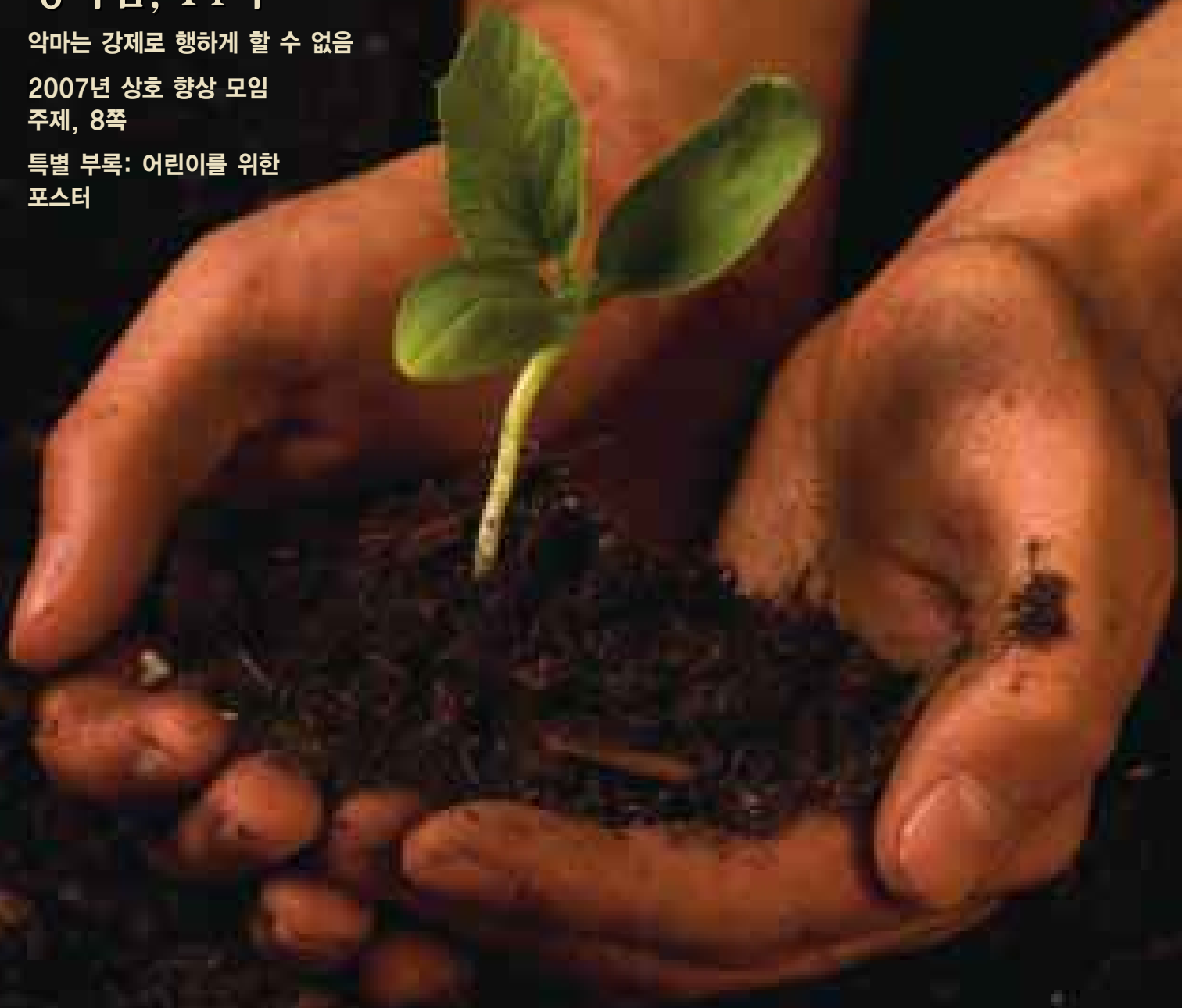
커버 스토리:

자라나는 간증을
양육함, 14쪽

악마는 강제로 행하게 할 수 없음

2007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8쪽

특별 부록: 어린이를 위한
포스터





“때가 이르기 전에 콩을 싹트게 하거나
달걀을 부화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을 강제로 반응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를 조성하고
영양을 주고 보호할 수는 있지만
역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자라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
“영적인 지식을 위한 탐구”, 14쪽 참조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사도 위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러드, 조셉 비 워스킨, 리처드 지 스퀴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게리 제이 콜먼, 요시히코 기무라, 제럴드 앤 렌드, 더블류 더글라스 생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호트

편집 책임자: 비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 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린다 스칼 쿠퍼,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라렌 포터 콘트, 캐리 카스텐, 멜빈 레빗, 엘리사 메릴, 샬리 제이 오데커, 주디스 엠 팔러, 비비안 폴슨, 리처드 엠 롬니, 제니퍼 로즈, 크리스티 루쉬, 돈 엘, 잭 토마스, 폴 맨덴버그, 줄리 워델, 킴벌리 웰

선임 비서: 오니카 엘 디킨슨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밴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타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캘리 알 아로요, 클레트 네베커 오온, 브리타니 존스 림,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텐슨,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랜달 제이 픽스톤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텐슨

통 권: 제 490호, 제 44권, 제 1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7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우광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자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liahona@ldschurch.org**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벨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힌디어(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6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January 2007 No. 1.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우리를 구원해 줄 힘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 12 귀걸이 **빅터 마카로브**
- 20 만물이 그분을 증거하니 **아담 시 울슨**
- 25 방문 교육 메시지: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 28 스펜서 더블류 김볼: 행동하는 사람 **가렛 에이치 가프**
- 38 교화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 **에이 로저 메릴**
- 44 후기 성도의 소리
강도, 책, 그리고 간증 **마이클 에스피노사 미라**
양복 로리 리스
- 48 애독자 편지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마르셀리노 페르난데스 레볼로스 수아레스**

표지
 사진 촬영: 매튜 라이어
친구들 표지
 사진 촬영: 김벌리 웹



28 스펜서 더블류 김볼: 행동하는 사람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다음 제언은 밤이나 가정에서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유익한 것,"

26쪽: 가족이 외우고 있는 것을 암송해 보게 하고 그 지식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콩넨 서리의 경우, 신앙개조를 외움으로써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토론한다. 가족이 함께 암송할 수 있는 성구나 찬송가를 선택한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행동하는 사람,"

28쪽: 가족들에게 "행하십시오"와 "걸음의 폭을 넓히십시오"라는 말로 잘

알려진 선지자가 누구인지 물어본다. 김볼 회장의 사진을 보여 준다. 기사에 나온 이야기들을 돌아가면서 읽게 하고, 요점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게 한다. 마지막 이야기가 끝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를 부른다. 기사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김볼 회장의 약속을 읽고 마친다.

"교화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 38쪽:

가족들에게 다음 질문에 답하게 한다. "성찬식 모임이 지루하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하는가?" 서로 다른 대답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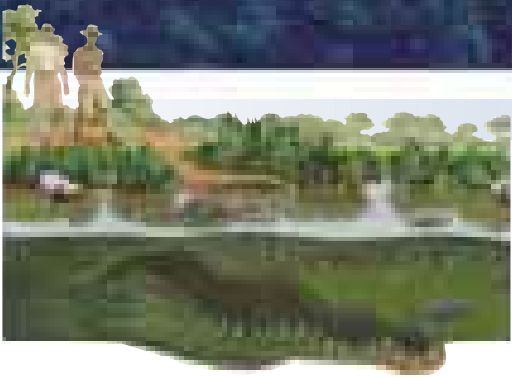




복사 금지

나사로를 일으키심: 제프리 하인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요한복음 11:43~44)



35
유혹을 극복함

청소년

- 8 진정한 자신감 *본부 청남, 청녀 회장단*
- 11 포스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14 영적인 지식을 위한 탐구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
- 26 알고 있으면 유익한 것 *콩 님 서리와 필리스 건터슨*
- 35 아이디어 목록: 유혹을 극복함
- 36 짧은 메시지
나는 가족이 영원할 수 있음을 압니다
모이세스 네피 모랄레스 곤잘레스
한 특별한 지도자
사리아 데 바로스 페레이라 다 실바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두려워 말라 *엘리자베스 리스*
- 친6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의 생애에서: 농장에서 일함
- 친8 신앙전서
- 친10 친구 사귀기: 저는 좋은 곳에 있어요-나오미 후그,
스위스 뮌헨스타인 킴벌리 웹
- 친13 특별한 증인: 세상이 너무
무섭게 느껴질 때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조셉 비 워스린 장로
- 친14 두려움의 반대 *퍼트리셔 알
존즈*
- 친16 색칠하기

친2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특별 부록: 어린이를 위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 포스터: 신앙으로 주님 따르리

올해는 매 호마다 정의반 반지 사진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 호에 숨겨진 정의반 반지를 찾으려면 구주에 대한 간증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토론한다. 같은 질문에 대한 킴볼 회장의 대답을 보여 준다. 교회 모임에 참석할 때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영을 받아들였던(교리와 성약 50:13~22 참조) 그의 모범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46쪽: 누가 가장 오랫동안 조용히 있을 수 있는지 보는 게임을 한다. 침묵이 끝나면 조용히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토론한다.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읽어 주면서 속삭임이 있을 때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귀 기울여 듣게 한다.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것에 대한 간증을 한다.

“두려움의 반대,” 친14쪽: 트리시아의 이야기 중 첫 번째 네 단락을 읽고 왜 그녀가 두려워했는지 알아본다.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한다. 트리시아의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는 기도와 찬송가의 힘에 대해 간증한다.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선택의지, 2, 28쪽
가르침, 1, 7, 25, 38쪽	성신, 14, 38쪽
가정 복음 교육, 7쪽	신앙개조, 26쪽
가정의 밤, 1쪽	신앙, 친4, 친13, 친14, 친16쪽
가족, 친10쪽	신약, 20, 친8쪽
간증, 14, 20, 46쪽	스펜서 더블류 킴볼, 28, 친6쪽
결혼, 12쪽	약, 2쪽
경전 공부, 28쪽	영감, 45쪽
고집, 친2쪽	예수 그리스도, 2, 20, 28, 친4, 친8쪽
기도, 28, 친4, 친14쪽	유혹, 2, 35쪽
덕, 8쪽	인봉, 36쪽
물문경, 44쪽	일, 친6쪽
방문 교육, 25쪽	자신감, 8쪽
배움, 14, 26, 38쪽	존경, 28쪽
봉사, 25, 28, 37, 45쪽	청남, 8쪽
사랑, 12쪽	청녀, 8, 37쪽
사망, 36쪽	하나님의 말씀, 38쪽
상호 향상 모임 주제, 8쪽	
상호부조회, 25쪽	
생각, 8, 11쪽	
선교 사업, 28쪽	



우리를 구원해 줄 힘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저는 모든 악의 근원이자 원인인 악마와 그의 사자에 대해 경고의 음성을 높여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탄이라는 주제는 우리를 교화해 주는 것이 아니기에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가 뛰어난 모방자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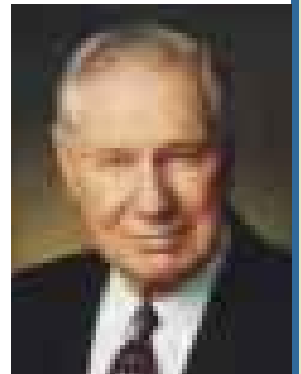
하나님의 왕국이 강해질수록 사탄의 권세에 대한 증거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세력을 확장하는 사탄의 영향력은 이 사업의 참됨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반대 세력은 더욱 교묘하면서도 공공연해질 것입니다. 더욱 교활하고 간사해지면서도,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런 모든 형태의 악을 인식하기 위한 더 큰 영성과 그에 대항하기 위한 더 큰 힘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업에서 낙담과 방해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¹

사탄과 그의 비밀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악에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어떠한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불안할 때와 마찬가지로 불에 데기가 너무 쉽습니다. “죄에 대한 지식은 그 죄를 범하도록 유혹”²합니다. 안전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탄과 그의 모든 사악한 활동, 못된 행위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마 숭배의 죄, 마법, 마술, 부두교 의식, 주술, 검은 마법 및 다른 모든 형태의 악마 숭배를 항상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브리검 영 회장님(1801~1877년)은 “악과 그 결과에 대해 ...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³ 사탄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하는 배후 세력임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엘마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무엇이든지 악한 것은 악마로부터 옵니다.”⁴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주요 이유는 바울의 말씀대로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⁵라고 젊은이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을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세상의 꾀변에 빠지지 않고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탄의 방식에 대해 특별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저의 삶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그의 영향력과 행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사탄은 제 앞에 놓인 길에서 저를 벗어나게 하려고 유혹했으며 가능하다면 저를 주님의 사업에서 쓸모 없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0여년 전의



**복음의 성약과
의식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노력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젊은 부자 관영의 일부, '하인리히 호프만, 해리슨 플로어사 저음: 사진 촬영: 부서스 포토그래피'



선

지자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수록 악마는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더욱 큰 힘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일이지만 지금도 저는 그때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는지 기억합니다.

마음을 끄는 사탄의 유혹

악마의 유혹을 듣고 느껴 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많은 경우 그의 음성은 매우 합리적이며
그가 던지는 메시지는 정당화하기가 무척
쉽습니다. 그 목소리는 달콤한 말투로 유혹하고
마음을 끕니다. 딱딱하지도, 귀에 거슬리지도
않습니다. 만약 사탄의 목소리가 귀에 거슬리거나
심술궂다면 아무도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마의 음성이 불쾌하다면
사람들이 듣도록 유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어둠의 왕자는 신사로다.”⁶ “악마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성서를 인용할 수 있다.”⁷ 뛰어난 모방자인
루시퍼는 속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⁸

사탄이 우리를 꾀는 가장 그럴듯한 말들에는

“모두 그렇게 하는 걸”,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면 괜찮아”, “괜찮다고 느끼면 괜찮은 거야”,
“그게 요즘 유행이야” 등이 있습니다. 이 교묘한
유혹으로 인해 사탄은 뛰어난 모방자, 전문적인
사기꾼, 최고의 위조자이자 고도의 모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탄을 따라 그릇된 길로 멀리
가 버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제동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에
굴복하면 이 제동 장치에서는 제동액이 새기
시작하고, 멈추게 하는 기능은 약해지고
무력해집니다.

니파이는 우리에게 사탄이 활용하는 방식 또는
공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가 달래며, 속여 가서 육신에
속한 안전에 거하게 하리니,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도다,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나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도다 할
것이라—이같이 악마가 그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그들을 인도하여 지옥으로

내려가느니라.

“또 보라, 다른 이들은 그가 달콤한 말로 속이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지옥은 없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결코 악마가 아니니 이는 악마란 없는 것임이라 하나니—이같이 그가 그들의 귀에 속삭이기를, 그의 끔찍한 사슬로 그들을 움켜쥐기까지 하나니 이에서는 건져냄이 없느니라.”⁹

제일회장단은 사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그의 방법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자신을 완벽하게 숨긴 채 움직입니다. 그가 짓지 않을 죄란 없고, 그가 조장하지 않을 방탕함도 없으며, 그가 보내지 않을 역병, 상처 입히지 않을 마음, 취하지 않을 생명, 멸망시키려 하지 않을 영혼도 없습니다. 그는 밤에 도적같이 오며 양의 털을 쓴 늑대입니다.”¹⁰ 세상 최고의 아침가 사탄은 웅변의 위대한 힘을 알며, 자신의 종들이 자주 이용하는 힘을 알고 있습니다.¹¹ 그는 항상 세상의 강한 세력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언젠가 전 과테말라시티 성전 회장이셨던 어니스트 리로이 해치 형제님이 “악마는 그가 악마이기 때문에 교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교활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마는 오래 살았으며, 처음부터 악마였던 것은 아닙니다. 본래 그는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초에 하늘의 군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던 한 천사”였습니다.¹² 그는 그리스도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겠사오며, 내가 온 인류를 구속하여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겠고 또 반드시 내가 이를 행하리니, 그런즉 당신의 존귀를 내게 주소서.”¹³ 그는 인간의 선택의지를 멸하여 강제로 행하고자 했습니다.

사탄은 무력으로 영광과 권세 및 통치권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¹⁴ 이와 반대로 “태초부터” 택함 받았던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¹⁵ 그들의 방법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사탄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늘 군대의 삼분의 일을 유혹하여 그를 따르도록 설득했습니다.¹⁶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그를 더 사랑하도록 설득하면서 “나도 또한 하나님의 한 아들이라”¹⁷라고 말하며 큰 거짓말을 꾸며 냈습니다.

선택의지—우리의 대안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지는

사탄의 강압적인 힘의 계획에 대한 훌륭한 대안입니다. 이 숭고한 은사로 인해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며 진보와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지가 없다면 자신과 타인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발전을 얻을 수 없습니다.

루시퍼는 반역으로 인해 쫓겨나 “사탄이 되었나니, 그러하도다, 참으로 모든 거짓의 아버지인 악마라, 사람들을 속이며 눈멀게 하며, 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서 포로가 되게 하였”습니다.¹⁸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사였고, 권능을 지녔으며, 하나님의 면전에 있기까지 했던 그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앞에서 내던짐을 받았습니다.¹⁹ 이는 커다란 슬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 하늘이 그를 위하여 울었음이라—그는 루시퍼니, 아침의 아들이더라.”²⁰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부여되는 책임으로, 길을 잃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차단”²¹된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길을 잃은 영혼들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이며 도움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탄은 한 가지 중요한, 부정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니파이후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이 꼭 필요함이라.”²² 그러나 베드로는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²³

기독교 작가인 시 에스 루이스는 우리에게 악마의 책략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소설 속 편지에서 대마왕 스크루테이프는 좀 더 노련한 악마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월우드라는 풋내기 악마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이러한 것들이 매우 사소한 죄라 말할 것이다. 그리고 필시 젊은 모든 악마들처럼 너 또한 극적으로 사악한 행위를 보고할 수 있기를 열망할 것이다. … 인간을 조금씩 빛에서 멀어지게 하여 무의 상태에 빠지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죄가 얼마나 사소한가는 중요하지 않다. … 참으로 지옥으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점진적인 길, 경사가 완만하고, 걷기에 편하며, 갑작스러운 급회전도, 이정표도, 도로 표지판도 없는 길이다.”²⁴

시 에스 루이스는 또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유혹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만연해 있다. 이는 분명한 거짓말이다. 유혹에 대항하고자 애쓰는 사람만이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안다. … 드러누울 때가 아닌, 바람에 맞서 걸을 때 그 힘을 느낄 수 있다.”²⁵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주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적대자의 힘 또한 더욱 강하게

루

시퍼와 그의
무리의 힘에
대한 보호는

성신의 은사를 통해
주어지는 분별의 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은사는
살아 계신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계시로서 분명히 오게
됩니다.



나타납니다.”²⁶

우리의 방어책: 굳게 섬

그러나 사탄의 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력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비겁한 사탄은 우리가 굳게 선다면 물러갈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²⁷ 사탄은 우리가 그에게 말하지 않는 한 우리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니파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릴 아무 권능도 갖지 못함이니.”²⁸ 우리는 코미디언 또는 그 밖의 사람들이 “악마가 강제로 시켰다”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설명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악마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사탄은 유혹하고 속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를 지배할 그 어떤 권세도 가질 수 없습니다.

사탄에 저항하는 힘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육신을 가진 모든 존재는 그렇지 않은 존재를 이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거역하는 그 순간, 사탄은 지배력을 갖게 됩니다.”²⁹

그는 또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악한 영들에게는 그들을 지배하는 경계선과 한계, 법이 있습니다.”³⁰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접근 방법 중 하나는 범법한 사람에게 용서받을 희망이 없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희망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죄는 아무리 무거운 것이라도 진심으로 원한다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악을 분별함

사탄은 잘 속는 이 세대에게서 큰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시퍼와 그의 무리의 힘에 맞서기 위한 충분한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성신의 은사를 통해 주어지는 분별의 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은사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 계신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계시로서 분명히 오게 됩니다.

이 개인적인 계시는 분명 하나님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사람 모두에게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들에게 “어둠이 없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³¹ 복음의 성약과 의식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노력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하고, 주님의 집에 가며,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고, 상한 심령으로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며, 그들을 감리하는 사람들을 따른다면, 거룩한 주님을 겸손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악마에게 속는 일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짓, 무질서, 폭력, 혼돈, 파괴, 불행 및 기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힘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의 변하지 않는 원리이자 성약이며 의식입니다. 이러한 원리, 성약 및 의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권 권세 및 권리와 결합됩니다. 이 교회에 속한 우리는, 지상에 있는 사탄의 힘의 상당 부분을 물리칠 수 있고 실제로도 물리치는 이 지배적인 권능의 소유자이자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죽은 조상들, 현재 살아 있는 우리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이 위대한 힘이 우리에게 맡겨졌다고 믿습니다.

저는 의로움이 널리 퍼짐으로 인해 파괴자가 온 세상을 저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도록 그의 악한 손이 멈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함과 불완전함, 단점들을 눈감아 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분께서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안을, 상심한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주

1. 교리와 성약 3:1; 65:2 참조
2. 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제5판(1939년), 339쪽.
3. *Discourses of Brigham Young*, John A. Widtsoe 편(1941년), 257쪽.
4. *앨마서* 5:40.
5. *고린도후서* 2:11.
6. *리어왕*, 3막 4장, 148행.
7. *베니스의 상인*, 1막 3장, 99행.

8. *고린도후서* 11:14; *니파이후서* 9:9 참조.
9. *니파이후서* 28:21~22.
10. In James R. Clark.,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제6권에서 (1965~1975년), 6:179.
11. *야곱서* 7:4 참조.
12. *교리와 성약* 76:25.
13. *모세서* 4:1.
14. *모세서* 4:3~4 참조.
15. *모세서* 4:2.
16. *요한계시록* 12:4; *교리와 성약* 29:36 참조.
17. *모세서* 5:13.
18. *모세서* 4:4.
19. *교리와 성약* 76:25.
20. *교리와 성약* 76:26.
21. *모세서* 6:49 참조.
22. *니파이후서* 2:11.
23. *베드로전서* 5:8.
24. *The Screwtape Letters* (1961년), 56쪽.
25. *Mere Christianity* (1960년), 124쪽.
26. *Mere Christianity* (1960년), 124쪽.
27. *야고보서* 4:7.
28. *니파이전서* 22:26 참조.
29. *The Words of Joseph Smith*, Andrew F. Ehat and Lyndon W. Cook 편집(1980년), 60쪽.
30. *History of the Church*, 4:576.
31. *교리와 성약* 88:67.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공과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불 가까이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한다. 불장난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는 “사탄과 그의 비밀에 흥미를 갖는 것”과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 사탄의 속임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파우스트 회장이 제시한 몇 가지 예를 나눈다. 가족에게 사탄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의로운 모범이 되도록 목표를 준다.

2. 작은 장난감 자동차 또는 자동차 사진을 가져오거나 가족에게 근처에 있는 자동차를 보게 한다. 운전하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 내부의 자제 기능에 대한 파우스트 회장의 예를 인용한다. 악마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성신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을 강화하고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유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한다.

3. 기사를 활용해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 몇 가지와 사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도구 몇 가지를 적는다. 가족과 함께 악마의 책략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에게는 그를 이겨낼 힘이 있다고 설명한다. 의로운 생활이 사탄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간증한다.

진정한 자신감

자신에 대해 더 좋은 느낌을 갖고 싶습니까? 자신감을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올해의 상호 향상 모임 주제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본부 청남 및 청년 회장단

때 때로 우리 모두는 불안감과 싸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감을 좀 더 갖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는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더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경전에 훌륭한 답이 있습니다. 경전은 여러분이 사랑을 지니고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교리와 성약 121:45)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자신감이 참된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라고 여러분은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이신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은 덕은 도덕적 탁월함, 올바른 행동 및 생각, 훌륭한 인격 및 순결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 내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¹

그러면 여러분은 또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침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있는 원리와 교리들이 성신을 동반하는 데 합당한 결정을 내리도록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성신이 함께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확신이 어떤 것이기에 그분의 영을 보내 주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온 표준대로 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회를 크게 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넓혀 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강화시켜 주실 것”²이란 주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더욱 유덕해질 것이며,

2007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교리와 성약 121:45)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감을 얻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재능,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인기를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자신감입니다.

주님의 표준은 세상의 표준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모에 초점을 두는 반면, “여호와
중심을 보”(사무엘상 16:7)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본성은 누구보다 열등하지도 월등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상에서의
거룩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어진 영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성장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어 여러분이 행복해하기를 바라십니다.

인생에서 무언가에 부딪힐 때면 경전의 영웅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세와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서
1:13, 20~22참조) 니파이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또 하나의
훌륭한 모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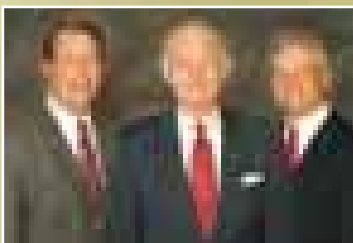
니파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낚시판을 가져오라는 명을
받았을 때 주님의 도움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압니다 하엿더라.”(니파이전서
3:7) 니파이의 확신은 그의 덕이 있는 생활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니파이,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덕이 있는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은 점점 커지고
“강하여”진 자신감을 가지고 지상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쉬지 [않]고
덕으로 [자신의] 생각을 [기꺼이] 장식하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

주

1. “얼마나 천사에 가까운
존재입니까?”,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95쪽.
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01년),
42쪽.



분부 청년 회장단: 수잔 더블류 태너(중앙), 줄리 비 백(왼쪽),
일레인 에스 돌튼(오른쪽). 분부 청남 회장단: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중앙),
딘 알 버게스(왼쪽), 마이클 에이 네이더(오른쪽)

늦

쇠판을 가져오라는
명을 받았을 때

니파이가 보인 반응은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됩니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알아니이다 하였더라.”

나는 할 수 있어! 자신감을 쌓아 주는 것들

더욱 더 큰 자신감을 갖기 원한다면 다음 사항을 실행해 보십시오.

- 모세가 했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 자신의 강점 및 장점 목록을 만드십시오.
- 축복사의 축복을 읽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받지 않았다면 받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봉사할 때 어떤 느낌이 오는지 일지에 적으십시오.
- 식사를 잘 하고 운동을 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좋은 영양과 신체 활동은 기분을 좋게 하고 자신에 대해 더 좋은 느낌을 갖게 해 줍니다.
-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일지에 감사함을 기록하십시오.
- 재능을 개발하십시오.
- 계명을 지키십시오.

자신감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자신감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때 옵니다.

끊임없이 좋은 생각을 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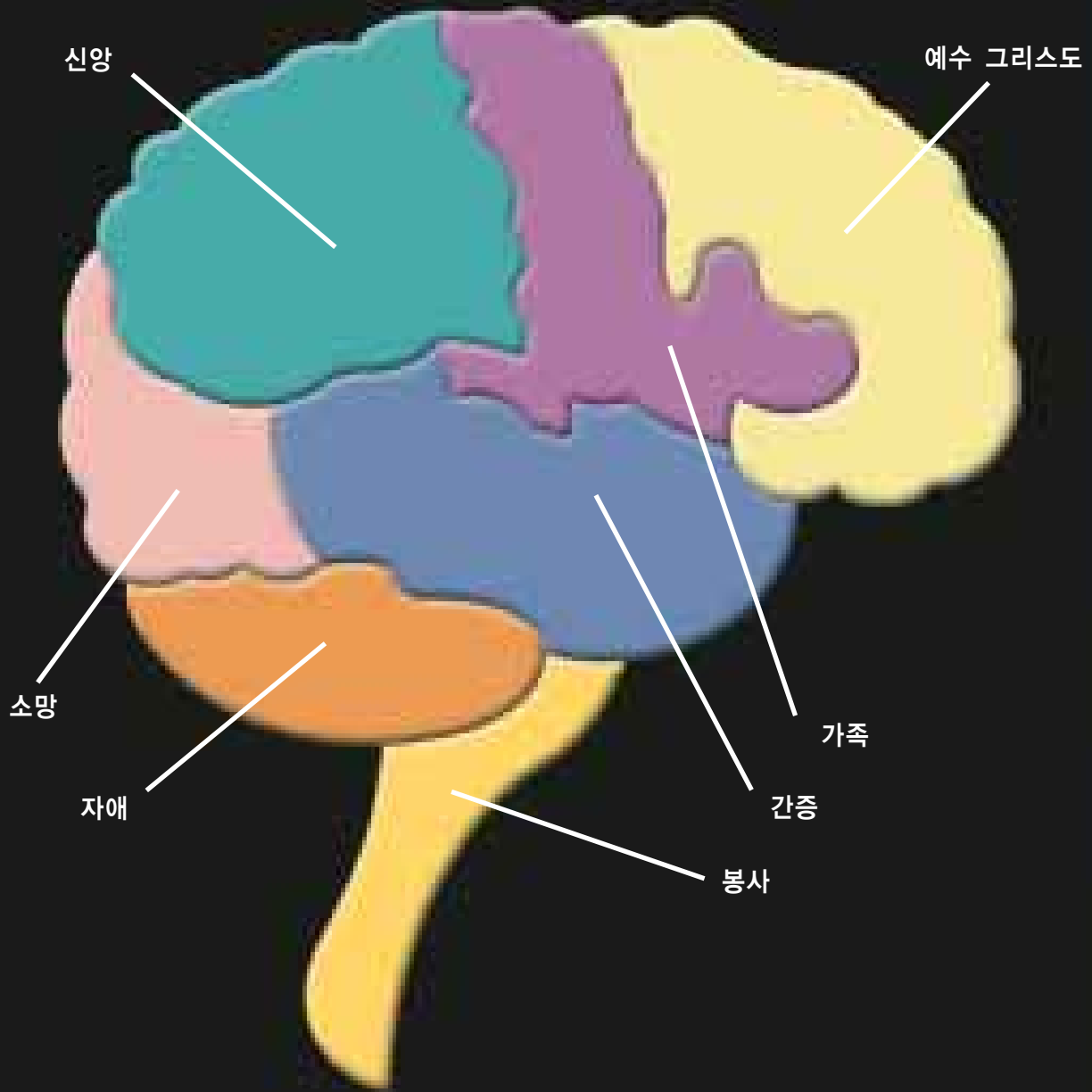
다음은 덕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장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호 향상 모임 활동 및 가정의 밤 제언들입니다.

- 경전 안내서의 “사고” 및 “덕” 항목 아래에 나와 있는 성구를 읽으십시오.
- 신앙개조 13조를 암기하거나 복습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으십시오.
- 덕과 유덕한이란 단어의 동의어를 적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 단어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 순수한이란 무슨 뜻입니까? 마시는 물은 왜 순수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왜 순수해야 합니까?

-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피한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악을 피해 도망쳐야 합니까? 어떻게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 좋아하는 성구, 또는 여러분 와드 청남 청년의 생각들을 묶어 소책자를 만드십시오.
- “금주의 성구”를 택해 매일 읽을 수 있는 장소에 붙여 두십시오. 매주 한 개씩, 금년 내에 성구 52개를 암기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성구 익히기의 성구들을 암기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 불경스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 여러분의 정원회사 반원들과 함께 모든 형태의 외설물을 피하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서로 어떻게 돕겠습니까?
- 가족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서로 사랑과 지지를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을 정하십시오.
-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오락과 대중 매체” 및 “언어” 항목을 읽고 연구하십시오. 그 항목에서 영이란 단어를 색연필로 표시하십시오. 이 표준들을 실천할 때 영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축복해 주는지 적으십시오.
- 인터넷과 대중 매체의 안전성에 대해 반이나 정원회,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토론하십시오.
- 우리의 성전에는 “주님께 거룩함”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덕이 있는 생각이 어떻게 여러분을 성전에 참석하도록 준비시킬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성전에 가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으십시오.
- 영감을 주는 가사가 나쁜 생각을 대신하도록 좋아하는 찬송가 중 콧노래로 부르거나 노래할 수 있는 곡을 두 곡 외우십시오.
- 하나님에 대한 의무 또는 개인 발전 기록부를 수행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의무의 영적인 발전 부분과 개인 발전 기록부의 고결성 항목은 특히 여러분이 순수함과 “쉬지 말고 덕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장식”하게 하는 축복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교리와 성약 121:45)

귀걸이

아내가 금 귀걸이를 잃어버린 날, 나는 우리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빅터 마카로브

아 내의 생일에 나는 멋진 금 귀걸이 한 쌍을 선물한 적이 있다. 그 귀걸이는 아내의 길고 우아한 목에 잘 어울렸으며, 햇빛에서 반짝거리도록 중심을 축으로 여러 개의 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 귀걸이를 할 때마다, 나의 아내 엘레나는 놀랄 만큼 아름다워 보였다. 아내는 이 귀걸이를 무척 좋아했다.

그 후 가장 즐거운 경축 행사인 우리 지부의 크리스마스 파티 날이 되었다. 러시아 펜자에 있는 우리 지부의 활동을 책임진 나는 모든 활동 준비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빨리 파티 장소에 가려고 서둘렀다. 엘레나는 서두르지 않고 계속해서 정성 들여 파티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인내심에 한계를 느낀 나는 아내에게 화장을 안 해도 예쁘니 그만 하라고 말했다. 그것은 내 실수였다. 아내는 자신은 아무데도 가지 않을 테니 파티에는 나 혼자 가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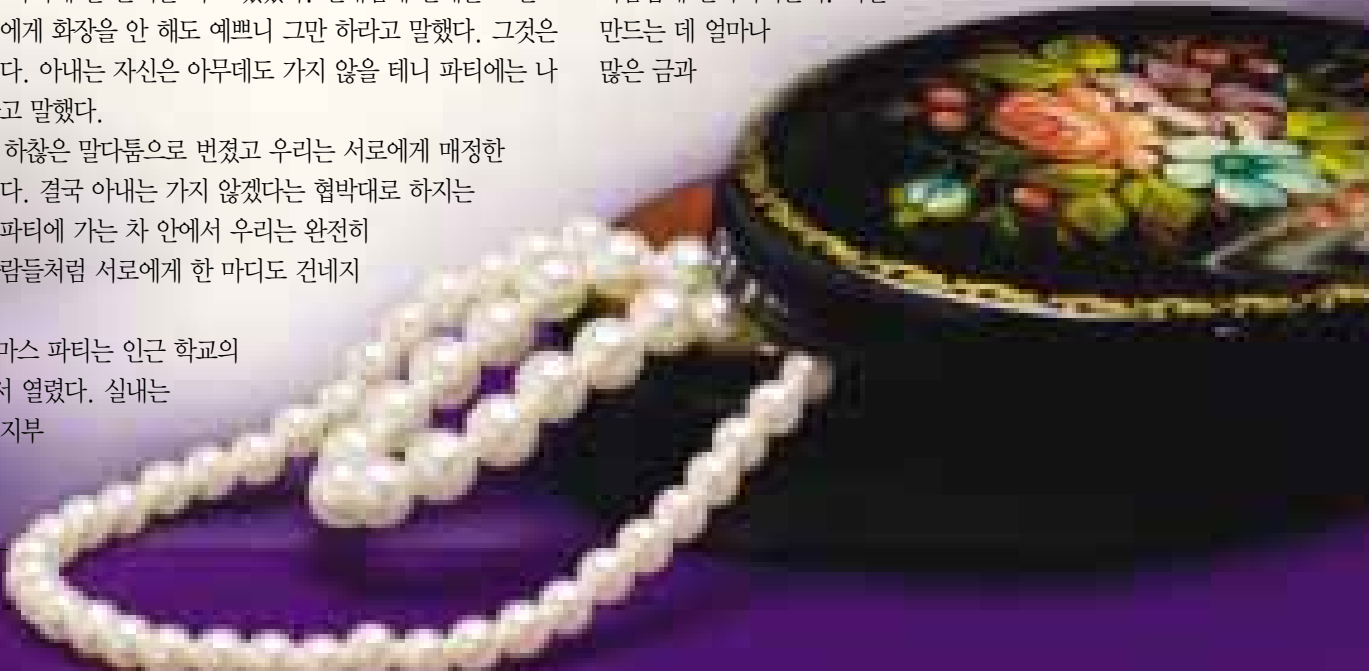
이것은 하찮은 말다툼으로 번졌고 우리는 서로에게 매정한 말들을 했다. 결국 아내는 가지 않겠다는 협박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파티에 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한 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파티는 인근 학교의 대강당에서 열렸다. 실내는 친구들과 지부

회원들이 주님의 생애와 사망을 묘사한 그림과 꽃으로 꾸며 놓았다.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을 때 아내는 자신이 한 쪽 귀걸이만 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일로 놀란 우리는 다투었던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우리는 주위를 살살이 살펴보았으나 허사였다. 귀걸이는 아무데도 없었다. 결국 당장은 귀걸이에 대해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라 결정하고 우리는 친구들이 준비한 멋진 공연을 감상했다.

공연은 정말 훌륭했지만 아내와 나는 충분히 즐길 수가 없었다. 우리의 하루는 엉망이 되었고 우리는 언짢은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다. 귀걸이를 잃어버린 것이 못내 우울했다. 값비싸고 아름다운 것이기도 했지만 아내를 위한 사랑의 선물이었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었다.

다음 날 잠을 깬 나는 우리가 금 귀걸이보다 훨씬 중요한 것, 즉 우리 사이에 존재하던 일체감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엘레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 한 쪽 귀걸이를 봐. 얼마나 아름답게 반짝거리는지. 이걸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금과





노력이 들었는지 생각해 봐. 그런데 달랑 하나만
탁자에 놓여 있잖아? 한 쪽이 없으니까 한 쌍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가치가 덜한 걸로 바뀌어
버렸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일
때는 선을 이루기 위한 아름답고 강하고
창조적인 힘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힘도 능력도 아름다움도
없어져 버려.”

아내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내는 가까이 와서 나를 포옹했다.
떨리는 음성으로 말하는 아내의 한
마디 한 마디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감동시키는 것이었다. “우린
절대로 다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고, 또 거룩한
성전에서 영원을 위한 결혼
인봉까지 받았잖아. 사탄은 지상의
모든 가족들을 파멸시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단합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번 일로 난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됐어. 하나님께서는 가족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 주셨어.”
나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감싸 안았다. 이제 나는 가장 큰
축복을 두 팔에 안고 있음을 알았다. ■





영적인 지식을 위한 탐구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진정 살아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아는지 단지
말로써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성신의 권능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관리 역원이 되기 전에 세계 깊은 영향을 준 한 가지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저는 비행기 안에서 무신론자라고 공연하는 사람 옆에 앉았는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불신을 너무나도 끈질기게 역설한 나머지 저는 그에게 제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알지는 못하시죠. 아무도 그건 몰라요.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굴복하지 않자 법률가인 그는 간증이라는 주제에 대해 어쩌면 근본적이라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면서 빈정대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비록 높은 학위를 가진 저였지만 막상 대답하려 하니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제가 성령과 증언이란 단어를 사용하자 그 무신론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기도, 분별력, 신앙이란 단어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는 무의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 보세요, 진짜로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일 안다면 어떻게 아는지 설명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어쩌면 제가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제 간증을 전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한 가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씀 한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영이 주는 첫 번째 암시에 주의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수한 예지가 여러분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갑작스럽고 놀라운 발상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영에 대해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계시의 원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¹

이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랐고, 저는 그 무신론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소금이 어떤 맛인지 알고 계신가요?”

“물론 압니다.”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금 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게 어떤 맛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는 잠시 생각해 본 후에 “글쎄요, 뭐, 달지도 않고 시지도 않은데요.”

“어떤 맛인지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어떤 맛이 아닌지 말씀해 주셨네요.”

그는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설명할 수가

원문: 지구 사진 © 코비스 이미지; 오른쪽 사진 촬영: 윌트 시 언더스, 모렐이 포즈를 취함; 배경 © 매스티파일



영적인 것들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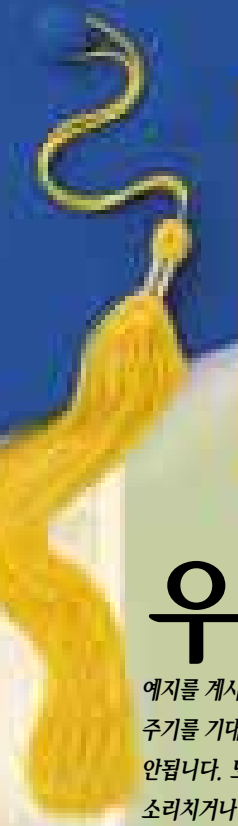
간증을 전함으로써 자신의 간증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사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영에 의해 배우십시오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말로서는 소금을 맛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경험조차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에게 간증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그 간증을 비웃었고 제가 정말 안다면 어떻게 아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소금을 맛보았습니다. 소금이 어떤 맛인지 당신이 제게 말해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식이 어떻게 제게 왔는지 말로서는 전할 수가 없군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진정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른다고 해서 저도 모른다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어지면서 저는 그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난 당신네 종교 따윈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우 리는 이미 받은 영적 또는 세상적인 예지를 계시가 대신해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영이 소리치거나 우리를 흔들으로써 주의를 끌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영은 속삭입니다.

그 경험 이후로 저는 제가 영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린도전서 2:13~14)

고요하고 작은 음성

경전에서 성령의 음성은 “거친 음성도”, “큰 음성도”(제3니파이 11:3) 아니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리도 아니요, 크게 떠드는 소란한 음성도 아니요,” 도리어 “그것은 마치 속삭임과도 같은 심히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었으며, 참으로 영혼에까지 꿰뚫었으며”(힐라맨서 5:30)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제3니파이 11:3)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주님의 음성이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열왕기 19:12)라는 것을 배웠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소리치거나 위압적으로 우리를 뒤흔들어 우리의 주의를 끌지 않습니다. 성령은 속삭입니다. 극히 부드럽게 감싸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몰두해 있으면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력하게 성령의

음성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그 부드러운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성령은 물러나 우리가 구하고 귀 기울이고 고대의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사무엘상 3:10)라고 말하며 찾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간증은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키가 자라듯이 간증도 자랍니다. 간증은 점진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들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억지, 강제, 강요, 압력, 요구 등의 단어는 영과 관련된 우리의 특권을 묘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콩을 싹트게 하거나 달걀을 부화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을 강제로 반응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를 조성하고 영양을 주고 보호할 수는 있지만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자라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커다란 영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자라게 해 주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되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는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십시오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빛과 지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의무를 행하라는 지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받은 영적 예지와 세상적인 예지를 계시가 대신해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예지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삶을 지배하는 일상의 과정과 규칙, 규정을 따르는 가운데 평소와 같이 평범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규칙과 규정과 계명은 귀중한 보호책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길로 나가기 위해 계시된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 지시는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라는 권고는 참으로 현명한 권고입니다.(교리와 성약 58:27 참조)

여러분의 간증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왼쪽: 사진 촬영: 켈트 시 문헌; 오른쪽: 사진 촬영: 나르니시, 해리 엘더슨 그림; 오른쪽: 사진 촬영: 매튜 라이어

마십시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할지라도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나이다.”(니파이전서 11:17)

여러분의 간증에는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게로 오면 내가 그에게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줄 것이라. 이는 곧 레이맨인들이 그 돌이킬 때에 나를 믿는 그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은 것 같으려니와 그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느니라.”(제3니파이 9:20)

몇 년 전에 저는 먼 나라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아들을 그의 선교 임지에서 만났습니다. 아들이 그곳에서 봉사한 지 일 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전혀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 아이의 생각이었으며,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단 일 년 동안 얻었던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영적 경험이 아닌 점진적인 성장이었기 때문에 아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때 가 이르기 전에
콩을 짝트게
하거나 달걀을
부화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을 강제로
반응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를 조정하고 영양을
주고 보호할 수는 있지만
역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자라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소 리 내어 말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시험입니다. 신앙의 행위로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참됨을 간증하십시오.

간증을 전함으로써 자신의 간증을 찾으십시오

선교사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간증을 얻기 전에 어떻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까? 만일 제가 그런 간증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부정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히 가르쳐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간증은 전하는 과정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찾기 위한 탐구 과정 어딘가에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앙의 도약”이란 것이 있습니다. 빛의 가장자리를 지나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바로 한두 발자국 앞까지만 빛이 비춰지고 있음을 알게



내 품속의 불

타일러 앤드러스

내가 처음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전한 것은 15세가 되어서였다. 나는 복음이 참됨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지만 세미나리 수업을 받던 첫 해는 내가 교회와 물문경에 대한 내 자신의 간증을 가지기 시작한 때였다.

처음 세미나리 수업을 받던 해 여름에 우리 스테이크는 아영지에서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대회 마지막에 간증 모임을 가졌는데 나는 간증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곧 영이 내게 일어나 간증을 전해야 한다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속삭임을 억눌렀지만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나는 간증을 전하기로 했고 간증을 하자 따뜻한 느낌이 몸 전체로 퍼져 나가면서 가슴속까지 뜨거워졌다. 내 가슴속에는 불이 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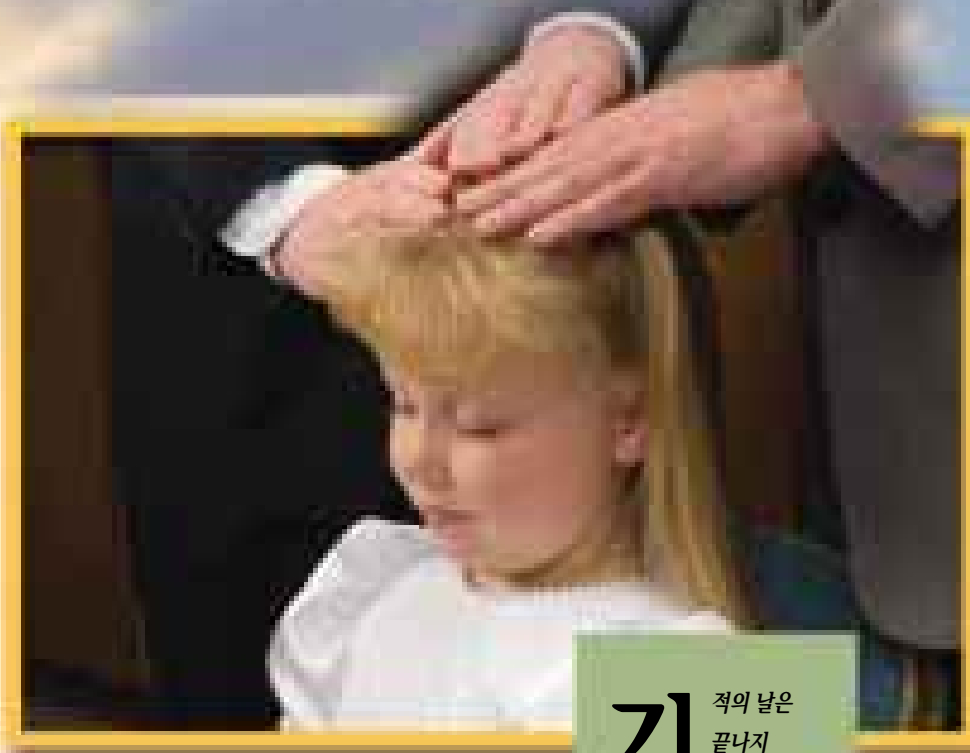
간증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운 이후로 간증을 전할 때마다 나의 간증은 자란다. 나는 평생 동안 계속해서 간증을 전할 것이다. ■

됩니다. 경전에서 말하듯이 “사람의 영혼은” 진실로 “여호와와의 등불”입니다.(잠언 20:27)

자신이 읽은 것이나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통해 증거를 얻는 것은 필수적인 시작 단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간증한 것이 참되다고 영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확인시켜 주는 것은 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증을 하는 동안 간증이 주어지리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줄 때, 그것은 더욱 큰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시험입니다.

신앙의 행위로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참됨을 간증하십시오. 이것은 선지자 엘마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제안한 바와 같은 일종의 실험입니다. 우리는 사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기 적의 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는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훌륭한
것은 성신의 은사입니다!

신앙으로써 출발합니다. 엘마서 32장에 있는 설교는 진리의 탐구를 시작하는 자와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말씀한 것으로서 경전에 담긴 가장 위대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 메시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증거의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에 대한 간증은 대부분 여러분이 간증을 전할 때 올 것이며 그것을 나눌 때에만 여러분과 함께 머뭅니다. 그 과정에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완전한 기독교 정신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꺼이 간증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간증을 찾거나 유지하거나 키울 수 없습니다. 간증을 아낌없이 나눌 때 그 간증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위대한 권능, 영적인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확인에 의해 성신의 은사를 받은 평범한 교회 회원이 주님의 사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17세의 선교사였던 그 친구는 동반자와 남부에 있는 한 오두막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날은 선교 임지에서서의 첫날이었으며 그 집은 그가 방문한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창문 안쪽에서 머리가 희끗한 한 여인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반자가 대답을 하라고 그 친구를 쿡쿡 찌렀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약간 말문이 막혔던 그는 마침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하나님이 한때 인간이었던 것처럼 인간도 언젠가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녀는 흥미를 느꼈고,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안으로 갔다가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교구의 목사였음을 밝힌 그녀는 그에게 성경책을 건네 주며 “자, 보여 줘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들고 불안하게 앞뒤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국 그는 성경을 다시 건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찾지 못하겠네요. 그 안에 들어 있는지조차 확실히 모르겠고, 있다 하더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유태 주의 캐쉬 밸리에서 온 가난한 시골 소년일 뿐입니다. 훈련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사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복음은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자비로 2년 동안 복음에 대한 제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후, 그는 그녀가 문을 열어젖히고 “들어와요. 당신이 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싶군요.”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에 의해 배우십시오

게시에 대한 모든 본질적인 요소들, 즉 기도, 금식, 신권 및 권세, 합당성 등 이야기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완전히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혼자서, 개인적으로 영에 의해 배워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확인을 받을 때 우리에게 부여되는 성신의 은사가 신성한 은사라는 것을 경험으로 압니다. 물론경은 참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감리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십니다! 기적의 날은 끝나지 않았으며, 천사가 인간에게 나타나 성역을 베푸는 일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는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훌륭한 것은 성신의 은사입니다! ■

1982년 6월 25일, 신임 선교부 회장들을 위한 세미나에서 행한 연설에서 발췌.

주

1. History of the Church, 3:381.

왼쪽 사진 촬영: 매튜 라미어; 오른쪽: 사진 촬영: 헬트 시 연타스; 사진: 무명이 포즈를 취함

만물이

그분을 증거하나니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그는 길이요, 빛이요, 생명의 떡이요, 생수이시며 모퉁잇돌이시다. 신약에서 그려진 성역을 통해 구주는 자신의 거룩한 역할과 가르침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연결지어 가르치셨다.

다음의 독일 청년들 또한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길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5~6)

레네 취론:

“저는 가족 중 일부만 회원인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제가 어느 길을 따라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들려 주신 성경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보았으며 아버지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교회에서 존경하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구주의 길을 따른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침례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주님에 대해 배운 것을 생각해 보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은 좀 더 완전한 길을 보여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내부의 자질을 계발하여 밖으로 드러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변화할 수 없다면 저의 생은 비참하겠지만 다행히도 그분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요한계시록 3:20)

레네 취론: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는 그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지만 그분께 문을 열어 드릴지 열어 드리지 말지를 선택할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도움을 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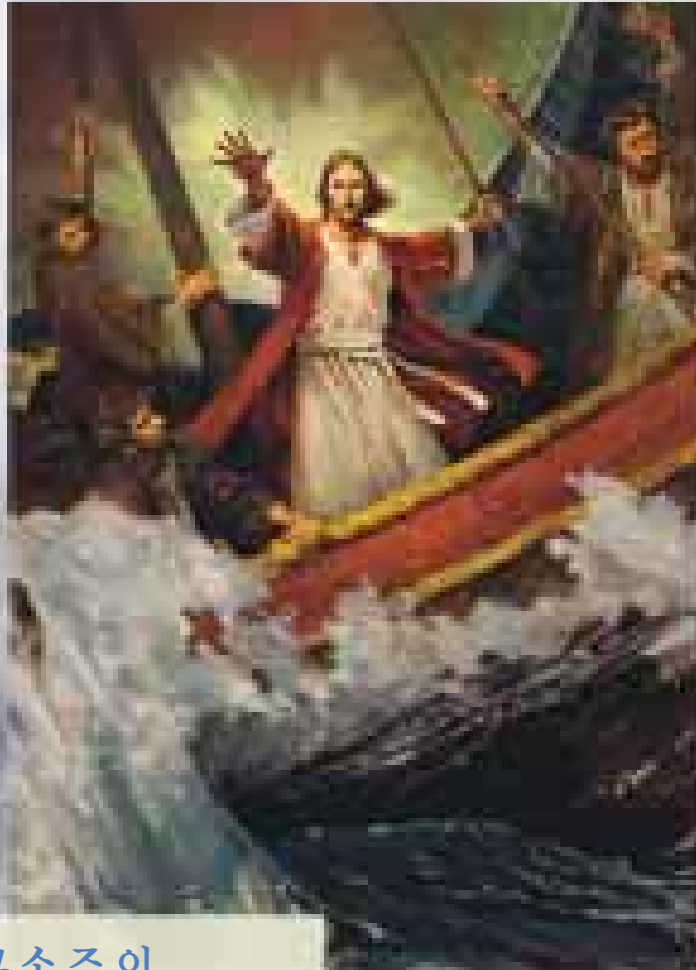
“저는 성품이 온순하게 변화되고, 그분이 저를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문을 열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변화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문을 열어 드릴 수 있습니다.



레네 취론



그분은 길이요



우리 구속주의

반석이시요

“저는 문 앞에서 계시는 그분을 항상 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도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찾아 그분께로 인도하라는 명을 받았습시다. 그들도 우리를 통해 주님을 어렵 곳이라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속주의 반석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태복음 7:24~25)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 (히라맨서 5:12)

마이케 애들러:

“저는 회원으로 성장했지만 열네 살이 되던 무렵,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결정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의 계속되는 초대에 응해 파티에 갈 것인가, 아니면 세미나리에 갈 것인가.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에, 저는 간증을 얻었고 세미나리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주가 계시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아주 달랐을 것입니다. 제 친구들도, 저의 가치관도 달랐을 것이며, 내가 왜 이 지상에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조언을 해 주는 사람들은 많지만 세상의 가치와 도덕은 변해 가고 바뀌어 갑니다. 확고하지 않고 바뀌는 것들을 토대로 삼는다면 저는 그 토대를 매번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변치 않는, 의지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옳다고 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기댈 수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12)

잔 다비트 월레벤:



마이케 애들러



잔 다비트 윌레벤

“그분의 복음은 인생에서 제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는 빛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이 지상에 왜 왔는지 알게 됩니다. 회개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 행동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신중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의 손길은 있습니다.

그분은 위안을 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간구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을 따름으로써 제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생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한복음 4:10, 14)

자스민 차나르도:

“저는 복음의 은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교회 밖의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너를 존경하게 돼.’ 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떡이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들이 그분을 알고, 나아와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해야 합니다.

모통잇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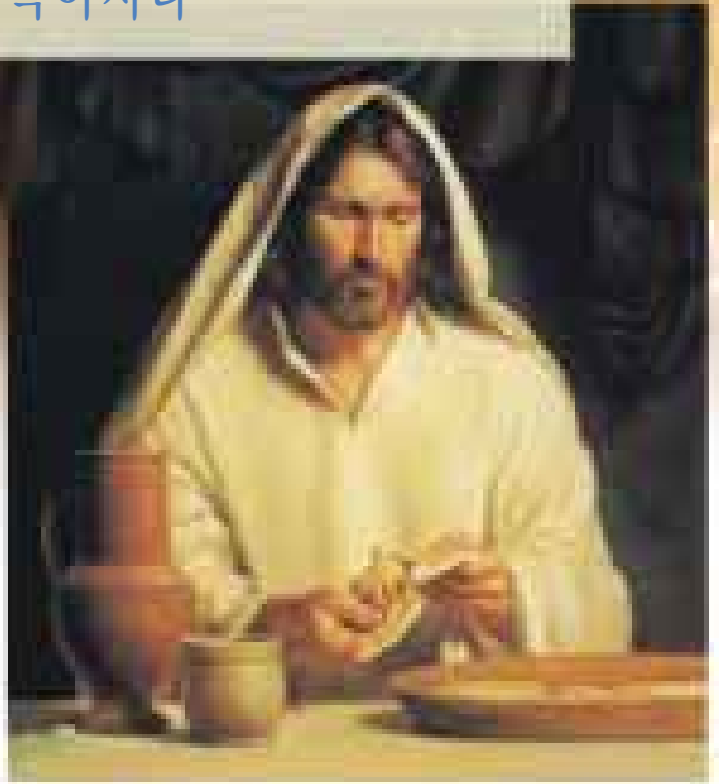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통잇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에베소서 2:13, 19~21)

자스민 차나르도:

“세상이 주는 것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진리를 외치는 종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기초는 굳건합니다.



생명의 떡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6:35)

자스민 차나르도:

“저는 복음 안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이 되면 교회가 참된지 아닌지 스스로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열두 살이 되었을 때 저는 교회가 참된지 알고 싶었고,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 저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힘든 시련들을 거치면서 저는 구주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게 되었고 위안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생명이십니다. ■



자스민 차나르도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앨마서 26장 3절: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진 축복이니, 곧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이 큰 일을 이루게 된
것이라.”

보니 디 파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도구가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셉
스미스는 그것을 우리 마음의 ‘연민의
장’에 따른 행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늘 원하던
방문 교사가 되고, 독신 성인에게 왜
결혼하지 않느냐고 묻기보다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쌓아 두는
대신 나누어 주고, 옷, 언어, 오락의
종류를 신중하게 고르고, 자신이 좌절과
두통거리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 또는 자녀에게
미소 짓고, 청녀를 안아 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유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기쁨을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태도로
보여 주십시오.” (“감미로운 순간들”,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107~108쪽)

**캐서린 에이치 휴즈,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주님은 여러 번 제
영혼에 감화를 주셨는데, 종종 그분의
손길은 친구의 손을 통해 제게 왔습니다.
아마 자신을 보살피는 사람들의 행동에서
주님의 손길을 찾아본다면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며,
우리에게 서로 도우라고 속삭이시고, 종종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 속삭임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답하시는 주님의
대리자로서 봉사할 기회를 허락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높이는: 주 님은 우리 친구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74~76쪽)

주님의 손에 든 도구로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든
강력한 도구가 되어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 또한
이웃을 [여러분]

자신 같이 사랑 [누가복음 10:27]한다면,
이 축복과 위안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신 것처럼
최선을 다하셨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겸손한 헌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든 도구”,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115~116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끝이 없습니다. 비판적
또는 부정적인 편에 서지
않도록 합시다. 힘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능력과
소망을 위해 기도합시다. 매사에 모든
곳에서 복음의 빛을 발산하여 구속주의
영이 우리에게서 발산되게 합시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여호수아 1:9) (“보다 큰 친절의
필요성”,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61쪽) ■



번역 © 에트나

알고 있으면 유익한 것

콩 닌 서리가

필리스 건더슨에게 이야기한 내용

나는 열아홉 살 때, 내가 살던 캄보디아 중부에 있는 작은 마을을 떠나 형과 함께 살기 위해 수도 프놈펜으로 왔다. 형은 몇 년 전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명찰을 단 두 젊은이를 만났었다. 이제 형이 내게 복음을 소개했고 침례를 주었으며, 이로써 나는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내가 침례 받았을 때, 지방부 회장이었던 펜 비볼 회장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신앙개조를 암기하십시오. 신앙개조는 교회의 모든 유익한 것, 즉 형제님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나는 현명한 충고라 생각하고 신앙개조의 13개 조항을 모두 암기하고 정기적으로 복습했다. 나중에 누군가가 기독교에 대해 질문하면 나의 신앙에 대해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후에 비볼 회장님의 충고가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밝혀질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형은 언제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받도록 나를 격려했다. 침례 받은 지 몇 년 후에 나는 미국 대학 입학 시험에 통과했고 4년간 장학금을 받고 BYU하와이에서 국제 마케팅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입학 시험도 어려웠지만, 가장 어려운 관문이 아직 남아 있었다. 바로 미국 입국 비자였다. 미국 입국 허가는 받기도 어려웠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때로는 미국 대학에 다닐 수 있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도 입국 허가를 거절당하곤 했다. 나는 필요한 양식을 작성하여 미대사관 인터뷰 약속을 잡은 후, 곧 푸른 눈의 한 젊은이와 책상을 두고 마주 앉게 되었다.

면접관은 “미국에는 많은 대학이 있는데 왜 BYU 하와이에 가기를 원하니까?”라고 질문했다.

나는 대답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고

그 대학은 교회 소유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면접관은 그의 서류를 뒤적이더니 “형이 이미 그곳에 가 있군요”라고 말했다. 대사관 측에서는 한 가족당 한 사람 이상이 동시에 국가를 떠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네, 형이 BYU 하와이에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나는 인정했다. 면접관은 좋은 표정이 아니었다.

그 다음 질문은, “부모님이 학비를 대 줄 수 있습니까?”라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계시고, 어머니는 판매원이십니다.” 나는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하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국에서 학비를 대 줄 수 있습니까?” 영사가 말했다.

나는 입학 허가서를 꺼내고는 그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서류를 본 뒤, 영사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카드를 꺼내더니 “이 신앙개조 가운데 4개를 암기해 보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것을 내 이름처럼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로 시작해서 3조까지 외웠을 때, 그 영사는 나를 멈추었다.

“네, 아주 좋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는 그 카드를 책상 서랍에 다시 넣었다. “내일 비자를 받아 가세요.”

나는 왜 그 면접관이 책상 속에 신앙개조 카드를 갖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암송하라고 했을 때 망설이지 않아도 되었던 것에 감사한다. 신앙개조를 아는 것이 언제나 그와 같은 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언제나 유익할 것이다. ■





Spencer Kibb

행동하는 사람

김볼 회장은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가렛 에이치 가프 교과 과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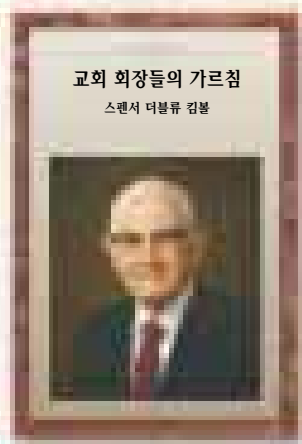
19

81년, 당시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그분은 실천하는 분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행하십시오’ 라는 간단한 좌우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¹

1973년 12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교회의 12대 회장으로 봉사한 이 “행동하는 사람”은 후기 성도들에게 자기만족을 피하고 언제나 더 높은 단계의 복음 실천을 향해 나아가라고 격려했다. 그는 “걸음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² 또한 이렇게 권고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계획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의 프로그램입니다. 아는 것 그 자체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생활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며 남을 돕기 위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³

김볼 회장은 전 생애 동안 복음 실천에 대한 굳은 결의를 보여 주었다. 그의 가르침 또한 우리 각자가 복음을 좀 더 완전히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영감적인 권고를 주는 것이었다. 다음의 예들은 영어 접자를 포함해서 26개 국어로 출판된 2007년도 멜기세덱 신권과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인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김볼에서 발췌한 것이다.**



기도

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생애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중 하나는 열한 살 때 어머니를 잃은 것이었다. 그는 그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그 소식은 내게 청천벽력과는 같았다. 나는 홍수처럼 눈물을 쏟으며 혼자 있기 위해 뒷마당으로 내달렸다.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곳에서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 열한 살 나의 가슴은 찢어질 듯했다.”

그러나 그토록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스펜서는 기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위안과 평화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 슬픔의 시기에 가족의 한 친구는 이렇게 적었다. “스펜서의 기도에 대해 들었을 때,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죽음이 어린 스펜서의 가슴에 너무나 큰 슬픔을 안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용감하게 그 슬픔을 이겨 내고 유일한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안을 구했는지에 대해 들었을 때, 저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울었습니다.”⁴

기도에 대해 김볼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분에게서 사랑과 영감을 받는, 그런 특권입니다. 기도를 끝마칠 때는 단 몇 분만이라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권고와 도움을 받기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을] (시편 46:10) 알아야 합니다.’⁵

“기도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즐겁고도, 일생 동안 하게 될

역사 사진: 후기 성도 교회 보관소 제공; 테투리 © 아트비즈



위: 김볼 회장은 일생을 통해 경전 공부에 대한 애착을 가졌다. 아래: 앤드류 가족 및 올리버 김볼 가족, 1897년. 두 살된 스펜서가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 있다. 맞은편 페이지: 카밀라 아이어링과 결혼할 무렵의 젊은 스펜서. (아래쪽 사진)

경험입니다. 기도를 한 후에 집중하여 들으면 때때로 여러 생각이 우리 마음에 홍수처럼 몰려듭니다. 때로는 느낌을 통해 강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평온한 영은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만일 정직하고 진지하다면, 우리는 좋은 느낌, 즉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따뜻한 느낌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항상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부가 그런 평온하고, 영적인 따뜻함의 의미를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 애석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평온하고 따뜻한 느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응답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생활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축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⁶

경전 공부

14세 소년이었을 때 스펜서 김볼은 어떤 설교를

들었다. 연사는 회중 가운데 성경책을 전부 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단지 몇 명만이 손을 들었다. 이 소수에 속하지 못했던 그는 그 거룩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할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부터 석유등 불빛 아래에서 읽기 시작하여 약 일 년 후에는 성경책 전부를 읽으려 했던 그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는 그가 일생 동안 경전 공부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데 한몫 했다.⁷

김볼 회장은 종종 경전 공부에 대해 가르쳤다. “우리 모두 경전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 정직하게 평가해 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흔히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성구가 몇 구절 정도는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복음에 대해 무척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인생에서 언젠가는 스스로 경전을 발견해야 하며, 또한 한 번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다시 발견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⁸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관심하게 될 때, 그리고 신성한 귀가 듣고 있지 않으며 신성한 음성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 제가



하나님께서서 무척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 자신을 경전에 몰입시킬 때, 그 거리는 좁아지고 영성이 돌아옵니다. 저는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제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더욱 강렬하게 사랑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할 때 그들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⁹

경건

김볼 회장은 어느 교회 집회소를 방문하는 동안 화장실 바닥에 손 닿는 휴지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주워서 버린 다음 세면대를 닦았다. 그 지역의 한 지역 지도자는 배려와 존중에 대한 그의 모범에 크게 감동해서 그 후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건물과 그 밖의 거룩한 것들에 대해 경건을 더욱 더 나타내 보일 것을 가르쳤다.¹⁰

김볼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모임 전후에 교회 회원들이 예배당에서 무리를 지어 인사를 나누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볼 때 불경한 어떤 행동들은 우리가 호의적인 사람들이며, 사람을 방문하고 우정 증진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에 안식일은 편리한 시간이라는 악의 없는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부모들은 모임 전후에 현관에서 또는 예배당 밖의 다른 곳에서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가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모임 후에 부모들은 가정에서 한 가지 생각, 음악 순서, 또는 그 밖에 모임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자녀들과 토론함으로써 예배의 영을 가정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¹¹

“우리는 경건이 일요일에만 취하는 엄숙하고 일시적인 태도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경건에는 사랑, 존경, 감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행복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덕성입니다. 사실, 후기 성도들은 온 지상에서 가장 경건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¹²

구주에 대한 헌신

1943년 이후로 사도였던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는 1940년대 말, 몇 차례의 심장마비를 겪었다. 회복기 동안 그는 뉴멕시코에 있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머물렀다. 교회 잡지는 후에 그가 그곳에 있었을 때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글로 실었다.

“요양 기간 중 어느 날 아침 김볼 장로의 침대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침 산책을 나가서 아침 식사 때면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던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10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들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김볼 장로를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되었다.

“마침내 그는 수 킬로미터 떨어진 소나무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그 옆에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 펼쳐진 채로 성경이 놓여 있었고,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수색대가 다가갔을 때에도 김볼 장로는 사람들이 그를 처음 발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놀란 음성엔 김볼 장로는 잠에서 깨어났으며, 그가 고개를 들자 사람들은 그의 뺨에서 눈물 자국을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5]년 전 오늘,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며, 저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분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¹³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김볼 회장은 구주에 대해 가르치면서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합니다. 저의 진심과 헌신을 그분께 보이고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분을 가까이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분처럼 되고 싶고, 그분이 니파이인 제자들에게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물으시고 자신의 질문에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제3니파이 27:27)라고 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¹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과 우리를 위해 견디신 고난들에 관해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는데도,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한 그분의 모든 번민과 고통은 무위(비: 헛수고)로 돌아가게 됩니다.”¹⁵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생애 가운데 셋세마네와 갈보리에서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삶에서의 희생과 비이기심의 중요성을 더욱 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¹⁶



남을 위해 봉사함

악천후로 공항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한 젊은 어머니와 두 살 된 딸이 집으로 가는 항공기를 타기 위해 몇 시간 동안이나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기는 지쳐서 보챘지만, 임신 중이며 유산의 위험까지 안고 있던 이 어머니는 아이를 안아 줄 수가 없었다. 의사는 그 어머니에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 두 살 된 아기를 안아 올리지 말라고 했다. 울고 있는 딸이 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 어머니가 아이를 발로 밀자 주위에서는 비난의 소리가 일어났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녀는 후에 이렇게 회고했다. 그러나 그때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와 친절하게 웃으면서 ‘제가 뭐 도와 드릴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은 흐느껴 울고 있는 우리 딸을 차가운 바닥에서 들어올려 사랑스럽게 꼭 안고는 아이의 등을 내내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분은 아이에게 껌을 씹을 수 있는지 물어 보셨습니다. 아이가 진정이 되자 그는 아이를 안고 내 앞에 줄을 서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동의하는 것 같았고, 그런 다음 그는 [줄 앞에 있던] 발권 창구로 가서 내가 곧 출발할 비행기에 탑승하도록 담당자에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벤치로 갔으며, 내가 안정이 됐다고 생각될 때까지 한동안 나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 갈 길을 떠났습니다. 약 일주일 후에 나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사도님의

사진을 보았고, 그가 바로 공항에서 만났던 그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¹⁷

이러한 원리에 대한 그의 신념을 보여 주는, 남을 위한 수많은 봉사의 모범을 통해서 김볼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러나 보통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왕국에서 서로 봉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 회원들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 즉 제자들이 함께 모인 이 공동체에서 힘과 도움, 그리고 지도력을 필요로 합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우리는 “... 약한 자를 [돕고]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교성 81:5)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읽게 됩니다. 우리의 봉사는 보통 간단한 격려나 평범한 일에서 평범한 도움을 주는 행위로 이루어지지만, 이 평범한 행위와 작고 사려 깊은 행동에서 나오는 결과는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습니까!”¹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는 우리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기간인 이 생을 깊이 있게 만들어 주고 달콤하게 해 줍니다. 봉사함으로써 우리는 봉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한 봉사에 참여할 때, 우리의 행위는 이웃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 자신에 대해 걱정할 시간은 줄어듭니다. 봉사의 기적 속에는 우리 자신을 잃음으로써 자신을 얻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39 참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신성한 힘을 인정한다는 관점에서 또는 “우리 자신을 얻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적절한 방법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면 할수록 더 많은 훌륭한 성품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는 더욱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는 더욱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찾을 것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자신을 “얻는 것”, 즉 찾는 것은 더 쉬워집니다.”¹⁹

복음을 나눔

십이사도 정원회의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는 에콰도르 키토에 있는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네 명의 선교사들을 포함한 한 그룹과 함께 앉아 있었다. 김볼 장로는 빵과 우유를 주문한 다음, 웨이터에게 자녀가 있는지 물었다. 그 웨이터는 아들이 한 명 있다고 대답했다. “빵과 우유가 그 아이를 건강하게 해 주겠지만, 이 젊은이들이 당신에게 주는 음식을 그 아이에게 먹이면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라고 김볼 장로가 말했다. 웨이터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듯해 보였다. 그러자 김볼 장로는 그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선교사들이라고 설명했다. 웨이터는 그들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²⁰

선교 사업에서 참으로 행동하는 사람인 김볼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왼쪽: 김볼 회장이 1979년에 테디 콜렉 시장으로부터 예루살렘 성 메달을 받음. 아래: 일본 삿쵸로 선교부 회장 사택에서 캐롤 고이즈미와 함께. 맞은편 페이지, 맨 위쪽: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 (왼쪽에 앉아 있음),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 (가운데), 그 외 나바호 부족 위원회의 회원들과 함께한 사람들, 맞은편 페이지, 맨 아래: 김볼 회장 (왼쪽에서 두 번째)과 그의 부인 (오른쪽에서 두 번째), 플로리다의 교회 데저렛 목장에서.

“저는 주님의 교회로 들어올 준비가 된 많은 사람들을 그분께서 매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의 친구와 지인들의 반경 안에 두셨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후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간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²¹

“선교 사업을 행하고, 구도자를 소개하며, 선교사들이 토론을 가르칠 때 그들과 함께하는 일은 영적인 모험입니다. 그것은 흥미진진하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단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회개와 신앙과 침례의 소망을 표현한다면 그 일에 들인 시간과 노력과 경이로움은 모두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²²

“형제자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우리의 임무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걸음의 폭을 넓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비전을 크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²³

가정에서의 사랑과 영성

김볼 회장은 사랑이 많은 아버지였다. 그의 아들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항상 애정이

넘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드워드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성회에 참석했을 때 가졌던 경험 하나를 이렇게 회상했다. “그곳에는 수천 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났을 때, 합창단에서 노래하고 있는 저를 [아버지께서] 알아보셨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아버지께서 오시더니 저를 껴안으시고는 입맞춤을 하셨습니다.”²⁴

김볼 회장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증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녀가 어리든 장성했든 간에 자녀들을 팔에 안고서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며 또 그들이 영원히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마지막으로 말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²⁵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훈련시키느라 많은 힘을 쓰시듯,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들을 의로움 속에서 양육해야 합니다.”²⁶

“참된 후기 성도 가정은 인생의 폭풍우 및 고난으로부터의 안식처입니다. 영성은 매일 매일의 기도, 경전 공부, 가정에서의 복음 토론 및 관련 활동, 가정의 밤, 가족 평의회, 함께 일하고 노는 것, 서로를 위한 봉사, 주변 사람들과 복음을





위: 김볼 회장 부부. 아래: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에스라 태프트 벤슨(맨 위쪽) 및 당시 제일회장단 보좌였던 고든 비 힝클리(맨 아래)와 함께한 김볼 회장. 오른쪽: 5명의 손주들과 함께한 김볼 부부, 1974년 크리스마스.



나누는 일에 의해 생겨나고 자라납니다. 영성은 또한 인내, 친절,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우리의 행동에서 그리고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복음 원리를 적용할 때 자라납니다. 가정은 우리가 복음 진리를 함께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면서 복음의 의로움 속에서 전문가와 학자가 되는 곳입니다.”²⁷

“제가 해야 할 모든 것”

김볼 회장의 생애와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복음 지식을 실천해야 하는 필요성을 상기시켜 주며, 우리가 좋아하는 초등학교 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 또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통해 그것을 상기시켜 준다. 1957년에 작곡된 원래 가사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었다. “Teach me all that I must know to live with him someday [주와 함께 살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소서.]”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김볼 장로는 얼마 후 마지막 소절에서 한 단어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제 노래는 다음과 같이 끝난다. “Teach me all that I must do to live with him someday [주와 함께 살기 위해 해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소서].”²⁸

이 가사는 김볼 회장의 생애와 가르침을 아름답고 간결하게 요약한 것이다. 그분은 말과 모범으로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쳤다.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음 생활의 길을 따른다면, 즉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것을 행한다면, 김볼 회장의 다음과 같은 약속을 얻게 될 것이다. “행복의 보고는 순수함과 간결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 지고의 행복에 대한 확신,

이곳에서의 성공적인 삶에 관한, 그리고 다음 생애에서의 승영과 영생에 관한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완전히 일치된 생활을 하려고 계획하고, 그런 다음 자신이 정한 진로를 일관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옵니다.”²⁹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김볼 (2006년), xxxv에서 인용됨.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262쪽.
3. “Seek Learning, Even by Study and Also by Faith,” *Ensign*, 1983년 9월호, 6쪽.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11~13쪽 Edward L. Kimball and Andrew E. Kimball Jr., Spencer W. Kimball (1977년), 46쪽 참조.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53쪽.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56~57쪽.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59~60쪽 참조.
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62쪽.
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66쪽.
1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155쪽 참조.
1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162쪽.
1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156쪽.
1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23쪽 참조.
1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31쪽.
1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29쪽.
1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81쪽.
1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79~80쪽 참조.
1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82쪽.
1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85~86쪽.
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258쪽 참조.
2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262쪽.
2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258~259쪽.
2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261쪽.
2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203쪽 참조.
2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212쪽.
2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212쪽.
2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210쪽.
2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1쪽.
2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6쪽.



유혹을 극복함

유

혹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처음부터 그것을 피하는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아프리카에서 한 야생 동물 공원을 방문한 것에 대해 말씀했다. 거기서 그는 가장 작은 웅덩이에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다. 물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그것이 비록 코끼리 발자국에 고인 물이라 해도 그 근처에는 악어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영적인 악어”, *리아호나*, 2002년 10월호, 8쪽 참조)

다음 아이디어들은 여러분이 이러한 위험한 “웅덩이”를 피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유혹이 숨어 있을 수 있는 장소나 상황을 피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다이어트를 하면서 빵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 자신과 같은 표준을 갖고 있지 않거나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의한다. 그들과 친구로 지내는 것은 괜찮으며 좋은 활동에 그들을 초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영역은 피하도록 한다.
- 시간을 확인한다. 시간이 늦었거나 피로할 때에는 저항력이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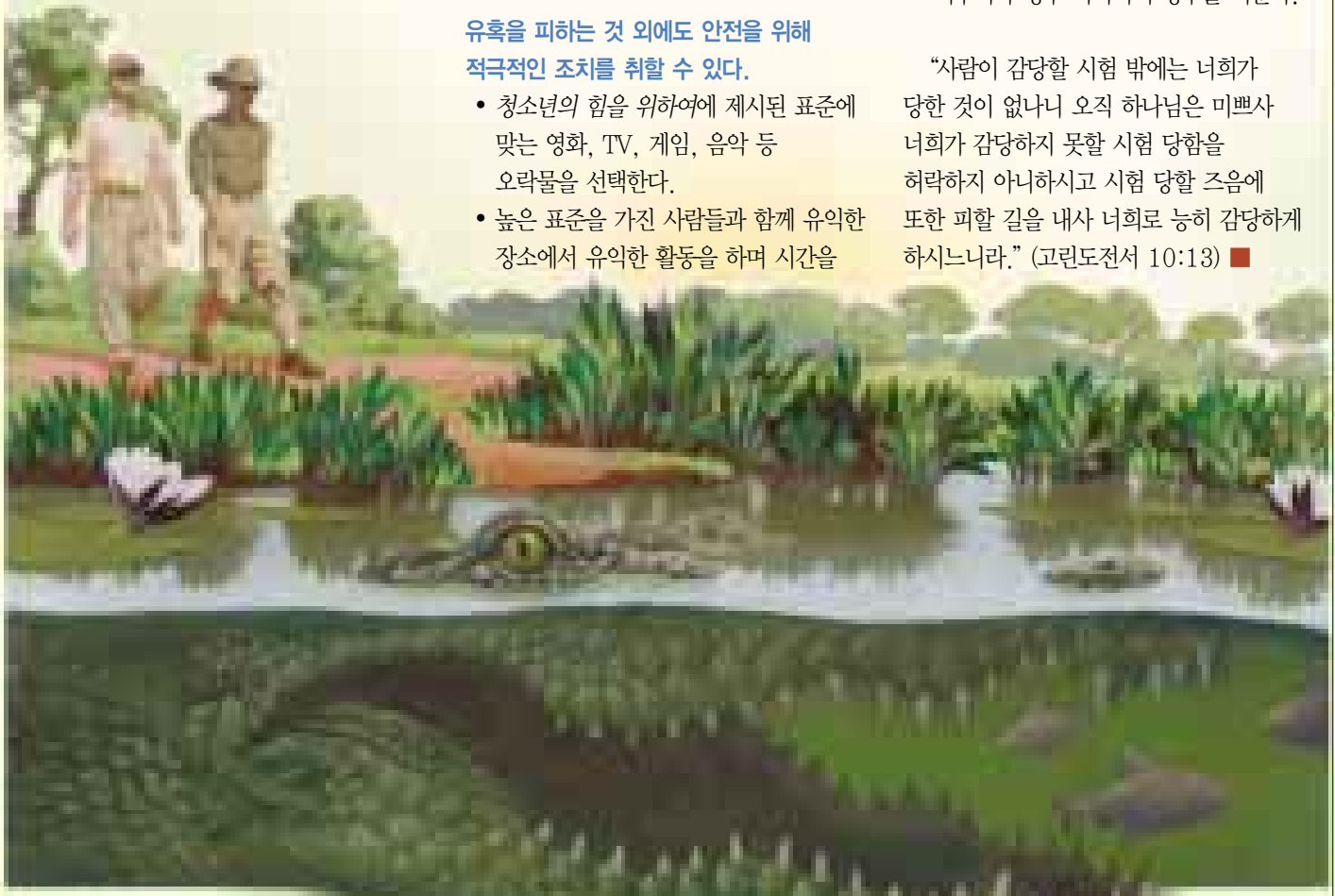
보낸다.

-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매주 교회에 참석함으로써 영적인 힘을 유지한다.
-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침례 성약을 기억한다. 여러분 자신은 성찬을 취하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구주를 기억하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
-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를 암기한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 찬송가를 부르거나 가사를 떠올린다. 또는 마음속으로 신앙개조를 외우거나 성구 익히기의 성구를 외운다.

유혹을 피하는 것 외에도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제시된 표준에 맞는 영화, TV, 게임, 음악 등 오락물을 선택한다.
- 높은 표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유익한 장소에서 유익한 활동을 하며 시간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13) ■



나는 가족이 영원할 수 있음을 압니다

모이세스 네피
모랄레스 곤잘레스

나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날은 내 생애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2001년 7월 12일 목요일, 어머니는 나흘 전부터 갑자기 아프시다 그날 돌아가셨다. 그때 나는 열여섯 살이었다. 가족과 함께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나는 시험을 포기해야만 했다.

나는 장례식을 마치고 황량한 마음으로

집에 갔다. 내 가슴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은 너무나 커서 언제까지도 절대 채워지지 않을 것만 같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흐느껴 울며 이렇게 자문했다. “왜 그렇게 빨리 가셔야만 한 거지? 왜 나를 두고 떠나야만 하셨던 거야?”

나는 열 살 된 남동생과 함께 조용한 찬송가를 듣기로 했다. 외롭고 슬프고 쓸쓸한 감정에 싸여 있었는데, 얼마 후 따뜻한 느낌이 찾아왔다. 나는 화평과 평안을 느꼈다. 슬픈 느낌은 사라지고 가슴속의 공허감도 사라졌다.

가족과 함께 친척들이 애도하고 있는 교회로 갔을 때도 난 여전히 이 위안의

영을 느끼고 있었다. 친척들은 모두 몹시 슬퍼하고 있었으며 오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엔 깊은 고통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이 왜 그들처럼 슬퍼하지 않는지 이상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나의 가슴은 조용히 뛰었고 온 몸은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보혜사, 곧 성신이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있음을 알았다. 성신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며 이 교회는 영원한 성약을 가진 참된 교회임을 증거하고 있었다.

그 후 나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어머니는 우리가 많이 우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다. 슬프기는 하지만 내 안에는 커다란 평화가 깃들어 있다. 나는 강해져야 하며 어머니를 다시 만나기 위해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나의 신앙과 간증은 커졌고, 나는 전임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어머니는 항상 내가 올바른 길을 걷도록 도우실 것이다. 나는 가족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15년 전, 오늘과 비슷한 어느 날, 나는 가족과 함께 페루 리마 성전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되었으며, 이는 나를 위안해 준다.”

나와 우리 가족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나는 간증이 흔들릴 때마다 성신이 나를 위로하고 복음의 영원한 진리에 대해 증거해 주었던 시간을 기억한다.



한 특별한 지도자

사리아 데 바로스

페레이라 다 실바

나는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준 한 특별한 지도자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녀를 만났을 때, 나에게서 친구가 별로 없었다. 나는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지도 않았다. 나는 세미나나 그 밖의 활동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사실, 나는 일요일에만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 그리고 간다고 해도 청년 반에서는 딴 생각만 했다. 몇몇 여자아이들은 나를 끼워 주려고 했지만 나는 마음을 열지 않았다.

이 지도자가 처음 나와 친해지려고 했을 때 그녀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처음에 나는 그녀의 이름조차 몰랐다. 그런데 그녀는 나에게 할 일을 주고 나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나는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를 몰라 그 책임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그녀는 나의 친구가 되기 시작했다. 나는 부름을 수행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고 반에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나는 세미나와 그 밖의 교회 활동에도 나가기 시작했으며, 와드 청소년들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복음은 곧 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

누가 내 삶에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는가? 오늘날 그녀의 눈을 들여다볼 때 나는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느낀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와 같은 특별한 지도자를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브라질 상 파울루 성전에서 나 자신을 위한 엔다우먼트를 받도록 준비시켜 주고 그날 함께해 준 그녀에게 감사하며 그녀의 사랑의 모범에 감사한다. 나는 그 사랑을 내 삶에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제 나는 와드의 청년 지도자로서 그녀가 내게 해 준 것의 일부라도 청년들을 위해 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 ■



교화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



에이 로저 메릴
본부 주일학교 회장

다음 질문과 경전에 근거한 답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개다이엔톤 도적들을 멸망시켰는가?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은 개다이엔톤 도적단을 수색하였으며, 또 그들 중 더욱 간악한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던지라, 마침내 레이맨인들 가운데서는 이 도적의 무리가 온전히 진멸되었더라.”(힐라맨서 6:37)

무엇이 우리를 유혹이나 대적의 불화살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굳게 붙들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겠고, 유혹이나 대적의 불화살도 그들을 이겨 눈멀게

하여 멸망으로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하였느니라.”(니파이전서 15:24)

죽음이나 전쟁의 위협보다 우리 생각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이제 말씀의 전파가 백성을 인도하여 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큰

경향이 있으므로 -
참으로 그것은
칼이나 그들에게
일어났던 다른
어떠한 것보다,
백성들의 생각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었더라 -
그리하여 엘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우 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때
영으로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였더라.”(엘마서 31:5)

무엇이 우리를 함께 기뻐하게 하는가?

“그런즉 전도하는 자와 받는 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50:22)

흥미롭게도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마지막 날에 개인의 삶과 가족과 세상에서의 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공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권능은 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받을 때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화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으로 받아들임

복음을 배경으로 한 곳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타당한 것이지만, 우리는 또한 배우는 자로서 우리 자신의 역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몇 년 전,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고 있던 어느 일요일, 저는 그 지역 선교부 회장, 그리고 여러 그룹과 모임을 갖기 위해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모임이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둘 다 지쳐 있었습니다. 이미 480킬로미터 이상을 운전했고, 수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임을 시작했고 다른 모임에서 다루었던 것과





우 리는 복음 공부를 건성으로 취급하면서 우리 삶에 말씀의 권능을 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하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이 고조되었고, 가르침과 배움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갔으며, 이는 모임 전체를 통해 이어졌습니다.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오늘 가졌던 모임 중 최고의 모임이었어요!”

무엇이 그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게 무엇이든 우리가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좀 더 명석해지거나 능력이 되거나 영적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편인가 하면, 사실 우리는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로 인해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주제도 다른 모임에서 다른 것과 동일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마지막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좀 더 겸손했으며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 열려 있었고 말씀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임의 성공은 우리들보다 그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러한 원리가 실제로 행해지는 예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지상의 성역보다 이것이 더 인상적으로 가르쳐진 곳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구주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3:54, 58)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로나이가 다음과 같이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지 말라. 이는 그가 사람의 자녀들의 신앙을 따라 권능으로써 역사하심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니라.” (모로나이사 10:7)

이제 저는 여러분이 일요일 공과 반 또는 성찬식에 참석할 때, 위대한 영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과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염두에 두며, 이 원리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과 반이나 성찬식에서 여러분이 지루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교사로 인한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으로 인한 것일까요?

언젠가 누군가가 김볼 회장님께 “지루한 성찬식에 붙잡혀 있어야 한다면 회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김볼 회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¹ 오랜 교회 생활 동안 김볼 회장님은 분명 사람들이 적어 온 말씀을 읽거나 단조로운 어조로 말하거나 교리 대신 여행담을 늘어놓는 여러 모임에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그분이 재미를 위해

성찬식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성약을 새롭게 하고 높은 곳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간다는 것이었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연사를 비판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원하는 열의와 기도로 참석한다면, 영은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이고 충실한 백성이 되기에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김볼 회장은 영으로 배우는 것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에게 성임을 받아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파송된 자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를 전파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만일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할진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또, 진리의 말씀을 받는 자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를 받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받느냐?

“만일 다른 어떤 방법으로 받을진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는 자가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대로 받는 것임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음은 어찌이나?

“그러즉 전도하는 자와 받는 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50:17~22)

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고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에 유의하십시오. 영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느낌과 필요 사항을 아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알려 줄 수 있습니다.

배우는 자로서 우리는 누군가가 항상 우리를 즐겁게 해주거나

감정적으로 고무되도록 해 주거나 손가락으로 떠 먹여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고 자신의 인생에 특별히 주어지는 난제에 대처하도록 도움을 주는 영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구해야 합니다. 교사가 20년 경력을 가진 종교 교육원 교사이든, 전에 전혀 가르쳐 본 경험이 없으며 배관공으로 일하는 새로운 개종자이든, 우리의 배움의 질에서는 조금의 차이도 없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으며, 조셉 스미스는 3년밖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은 그들을 통해 “귀 있는 자”(마태복음 11:15)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찾고 구함

그러면 영으로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까?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배움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성실한 질문을 하십시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엘마서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능력을 일깨우고 환기시켜, 참으로 내 말을 시험하기에 이르며,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하려 할진대, 참으로 설혹 너희가 믿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 지라도, 이 바람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게 하기를, 곧 너희가 믿어 내 말의 일부를 위한 자리를 내줄 수 있기까지 그리하라.” (엘마서 32:27)

우리는 복음 공부를 건성으로 취급하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의 권능을 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일깨우고 환기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을 시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기를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 바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일부를 위한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엘마는, 일요일에 나타나 교사가 자기를 즐겁게 해 주기를 기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는 우리가 말씀의 권능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기를 바라다면 우리 자신의 배움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손을 뻗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야고보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말씀은 조셉 스미스에게 거룩한 숲으로 가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김볼 회장은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루한 성찬식에 붙잡혀 있어야 한다면 회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김볼 회장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야고보서 1:5~6)

주님은 한결같이 받을 것이며, 찾아낼 것이며, 계시의 문이 우리에게 열릴 것이라는 거룩한 약속과 함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성실한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의 인도를 부르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조셉이 야고보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많은 의문 가운데 몇 가지를 상고해 봅시다.

“이러한 언쟁과 의견의 혼돈 속에서 나는 종종,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교파 중에 누가 옳은가? 아니면 그들 모두가 다 그릇된 것인가? 만일 그들 중 어느 하나가 옳다면, 그것은 어느 것이며, 나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해 보았다.” (조셉 스미스-역사 1:10)

조셉이 마음속에 이러한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의 말씀은 “큰 힘을 지니고 [조셉의] 마음” (조셉 스미스-역사 1:12)에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이 적절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야고보서에 있는 이 구절들에 대한 공과를 다루고 있는 반에 참석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 공과를 준비하거나 반에서 이 구절에 대해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야고보는 누구인가? 이 특별한 구절을 이끌어 낸 의문이나 상황은 무엇인가?
- 지혜란 무엇인가?
-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의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나는 언제, 그리고 왜 의심하는가?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 어떤 상황에서 나는 “밀려” “요동”한다고 느꼈는가? 이러한 때에 내가 믿음으로 구하기 위해 얻을 수 있는 식견은 무엇인가?
- 이 구절에서 가르치는 교리 또는 원리는 무엇인가? 이 구절 외에 경전 어디에서 이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 이 원리들은 구주의 생애 그리고 사명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 원리들은 어떻게 나를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해 주는가?
- 이 원리들은 나와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특별한 어려움이나

기회에 대처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영감에 찬 질문을 하고, 삶에서 진지하게 인도를 구하는 우리의 본분을 다할 때, 영을 불러들여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가르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가르침

주님은 영으로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가르치기 위해 공과 책을 훑어보면서 “정말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 영으로 가르쳐야겠군”이라고 말하면서 복도를 걸어가는 사람을 보았거나 실제로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정성 들인 유인물, 다양한 시청각 자료 그리고 “영으로 가르치기” 위해 한 마디 한 마디 다 준비된 대본을 포함한 공과를 준비하느라 몇 주씩이나 보낸 사람을 보았거나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도 주님께서 의도하신 방법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전체에 걸쳐 가르치기 위한 표준은 경전에 나와 있으며 나의 복음을 가르치라 교재에 보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교리와 성약11:21)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연구로 철저히 준비하고, 성실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구한 후 교안을 작성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실제로 가르치는 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 마음을 완전히 열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습니다.

최근의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위성 방송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교리와 성약의 다음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쌓아 두라. 그리하면 바로 그 시각에 모든 사람에게 할당되는 분량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교리와 성약 84:85)

그런 후 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고입니다. 이를 무시하고는 무사할 수 없습니다.”²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쌓아 두”어야 합니다. 즉 읽고, 연구하고, 주님께 여쭙어 보고, 준비하고, “바로 그 시각에 모든 사람에게 할당되는 분량”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영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에서 가르치든 성찬식이나 스테이크 대회에서 말씀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사는 좀처럼 반에서 설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사는 성찬식이나 스테이크 대회나 지방부 대회의 일요일 모임에서 토론을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에서 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이 거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영감에 찬 질문을 하며 우리가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칠”(교성 88:77)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반에서의 가르침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절대, 다시 강조하건대, 절대 반원들의 참여가 없는 강의를 하지 마십시오. 홀로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반원들이 선택의지를 사용할 때 성신으로부터 가르칠 수 있는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은 반원들이 여러분의 메시지를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반원들이 진리를 자신의 말로 표현할 때, 진리는 그들의 영혼에 각인되고, 개인적인 간증을 강화시킵니다.”³

가정에서의 가르침도 이와 같이 영에 의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족 경전 공부와 가정의 밤과 같이 정기적으로 가르치는 시간이 있지만 대부분의 가르침은 예기치 않는 시간에 모범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부모는 준비하여 가르치는 순간에 영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 쌓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주님의 계획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 안에서 참으로 “교화되며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

주

1. 1989년 1월 30일, 교회 교육 기구 모임에서; Gene R. Cook, *Teaching by the Spirit*(2000)에서 인용, 140쪽.
- 2 “선교 사업”,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1월 11일, 20쪽.
3. “To Understand and Live Truth,” 교회 교육 기구 위성 방송, 2005년 2월 4일.

부 모는 준비하여
가르치는
순간에 영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 쌓아
두”어야 합니다.

강도, 책, 그리고 간증

마일린 에스피노사 미라

칠레에 살고 있는 나는 여덟 살 때부터 교회 회원이었다. 나는 언제나 내가 다니는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물몬경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다고 느꼈지만, 그것은 빌려 온 간증이였다. 나는 물몬경을 끝까지 읽어 보고 싶었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었다. 니파이전서 뒤로는 읽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002년 7월 4일 밤, 친구와 나는 종교 교육원 물몬경 수업에 참석했다. 우리는 수업이 끝난 후 남아서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10시 15분경 우리는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고, 헤어져야 할 곳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멈춰 서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

남자 두 명이 지나가며 몇 시냐고 물었지만 우리는 대화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그들의 말을 거의 듣지 못했다. 갑자기 그들은 다시 돌아왔다. 한 남자가 내게 팔을 두르더니 목에 칼을 들이댔다. 그런 다음 그는 나를 풀어 주고 내 친구를 위협했다. 다른 남자는 우리에게 돈을 요구했고, 돈이 없다고 말하자 몹시 화를 냈다. 그들은 우리의 재킷과 등에 맨 가방을 요구했다.

그 재킷은 내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했던 것으로 한 달 전에야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빠가 준 가방은 내게 무척 소중한 것이었다. 친구의

가방에는 제출해야 할 숙제가 들어 있었다. 나는 무서운 나머지 거의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강도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의 물건을 주었다. 그런데 순간 나는 이렇게 말했다. “잠깐만요! 제 물몬경을 꺼내게 해 주세요! 제게는 유일하게 소중한 물건이에요.” 도둑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며 그 책을 꺼내게 해 주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도망쳤다.

나는 그 책을 꼭 껴안았고 다른 어떤 것에도 신경쓰지 않았다. 이 소중한 책을 두 범죄자에게서 구해 냈기 때문에 나는

평화를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나의 이 소중한 책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빛 속으로 드러냈던 사람들이 치른 모든 희생에 대해 더욱 큰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 책을 읽기 시작했고, 형용할 수 없는 평화와 극적인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 책은 내게 훨씬 큰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두 달 뒤 나는 그 책을 다 읽었고, 마침내 그 책에 대한 내 자신의 간증을 얻었다.

내 책을 다시 달라고 할 용기가 어디서

우리는 강도들에게 우리의

물건을 주었다. 그러나 나는 가방 속의 물몬경을 기억했고 그것을 꺼낼 수 있는지 물어 보았다.



우 리 문 앞에
있는
선교사들로
인해 내게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왔고, 나는 그
양복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바랐던 간증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 어떤 나쁜 감정도 품고 있지 않다.

그 간증은 내가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동기를 갖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아르헨티나에서 물몬경에 대해, 그리고 이 사업이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과 나누며 봉사한 후 귀환했다. ■

양복

로리 리스

때 는 성탄절 직전이었고, 나는 내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데저렛 인터스트리스(역주: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인 중고품 할인 판매점)에 기증할 수 있는 물품을 찾기 위해 나는 집 안 구석구석을 뒤졌다. 마지막으로 침실을 찾아 보게 되었을 때, 남편과 나는 옷장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우리의 옷가지들을 살펴봤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당신은요?” 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데이비드는 더 이상 입지 않는 셔츠를 한 더미 쌓아 올리고 신지 않는 신발 몇 켤레를 찾았다.

“이 양복은 어때?” 남편이 물었다. 수년 전 남편의 면접을 위해 골라 준 옷이었다. 옷은 여전히 새것처럼 보였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이 옷은 이제 맞지 않아.”

“그래도 아직 새것 같은데 ….”라고

내가 말했다.

“이 양복을 꼭 기증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어.”라고 데이비드가 말했다. 그는 옷장에서 그 양복을 꺼냈다.

나는 남편이 그 양복을 입은 모습을 좋아했지만 남편에게는 다른 옷이 있었고, 이제는 그 옷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옷을 기증할 물품들 위에 올려 놓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걸끄러운 느낌이었다. 나는 그 옷이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데이비드는 넥타이 쪽으로 갔다. 그는 잡초를 뽑듯 사정없이 골랐다. 여러 개의 넥타이를 끄집어 내어 양복과 함께 놓았지만 그 또한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물품 더미 위의 양복은 내 잠을 설치게 했다. 맞지도 않는 양복과 오래된 넥타이 몇 개에 대해 그토록 걱정하는 내 자신이 이상하게 여겨졌다.

다음날 아침, 나는 옷 더미를

바라보았다. 양복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다시 한번 강하게 들었다. 나는 양복을 더미 위에서 들어내 넥타이 몇 개와 함께 침대 위에 두었다. 다른 것들을 모두 가방 속에 넣은 후 나는 다시 한번 그 양복을 바라보았다. “누구를 위한 걸까?” 나는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침대 곁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책상으로 가서 생각해 보았다. 남편과 나는 와드 청년 성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누가 선교 사업을 나가는지 알고 있었다. 머릿속에 떠오른 그 형제가 선교 사업을 나가기까지는 시간이 꽤 남아 있었다. 그는 또한 안정된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양복을 장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감독님에게 전화를 했지만 자동 응답기로 연결되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연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안녕하세요, 리스 자매님?” 와드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이 미소를 지었다.

나는 갑자기 그 양복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믿을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다. “잠깐만 계세요, 곧 돌아올게요.”

장로들이 나의 이상한 인사에 웃고 있는 동안 나는 들뜬 마음으로 계단을 손살같이 올라갔다. 양복을 가지고 내려오는 동안 큰 기쁨이 나를 가득 채웠다.

“재킷 사이즈는 40이고, 바지는 허리가 33에 기장이 32예요.”라고 내가 말했다. 사이즈가 맞기를 바라면서 나는 한 장로를 바라보았다.

그 선교사의 얼굴이 환해졌다. “저는

40 사이즈에 바지는 허리 33에 기장 30을 입습니다.”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제 부모님과 저는 선교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입을 양복을 찾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귀환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양복은 이제 거의 다 헤어졌거든요.”

그 충실한 장로는 양복과 벡타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였다. 문을 닫은 후 나는 침실로 다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렸다. 그분은 항상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

모임이 시작되었고, 교육 책임자는 연사를 소개하면서 그에게 갖가지 찬사를 보내고 그가 학위를 받았던 일반 대학교 및 신학 대학교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했다. 연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시대에서부터 미국에서 조직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해 세상이 처음으로 듣기 시작했던 1830년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함으로써 연설을 시작했다.

그 연사는 우리 종교에 대해 지나친 혹평은 하지 않았다. 그가 물문경 및 교리와 성약의 구절들을 자주 인용한 것으로 보아 우리 교회의 책들을 많이 읽었음은 분명했다. 또한 그는 첫번째 시현에 대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기록에서 많은 부분을 읽어 주었다. 만일 물문이즘이 그가 믿는 대로 하나의 교파라면, 위험한 교파들 가운데 하나는 아니라는 결론으로 청중을 이끌려는 듯이 보였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부분들, 예를 들어 물문들은 기독교도가 아니며 조셉 스미스는 오래된 미국 소설에서 물문경을 모방했다는 부분 등을 모두 필기해 두었다. 강연은 꽤 상세했고 90분 이상 지난 후 끝났으며, 그때 강연회장은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로 넘쳐났다.

박수가 끝나고 토론이 시작되었을 때, 꾸이르씨 형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자신을 교회 회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셉 스미스가 어떻게 금판을 얻었으며, 또 그가 회복의 선지자로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설명했다.

꾸이르씨 형제의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나도 일어나서 참석자들에게 우리의 교리와 믿음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마르셀리노 페르난데스 레볼로스 수아레스

아 내와 나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이 운영하는 학교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종교적인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 단체에서 후원하는 학교에 다니도록 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에 다니는 유일한 교회 회원이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지 않기를 바랐다.

1999년 10월 어느 날, 당시 열여섯 살이었던 아들 파블로가 “물문이즘이라는 종교적 교파”라는 제목의 토론 강연회에 참석해 달라는 학교 측 초대장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강연은 일생의 대부분을 여러 종교, 특히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연구에 헌신한 것으로 잘 알려진

저명한 학자가 할 예정이었다.

우리 종교를 옹지 않게 알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심에 나는 스테이크 회장에게 연락하여 모임에 대해 말했다. 그는 일자과 장소를 받아 적고는 교회 공보부에 연락해 대표자 한 명이 그곳에 참석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강연회 날, 나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학교로 갔다. 강연이 열릴 장소에는 500명을 위한 자리가 있었다. 자리에 앉은 후 우리는 눈을 돌려 그 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많은 군중 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교회 회원들을 찾아보았다. 우리는 곧 공보를 담당하는 꾸이르씨 형제를 발견했다. 그는 방 저편에서 우리를 향해 다정하게 손을 흔들었다.

개념들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느꼈다.
 내가 말을 하고 싶다고 가족에게
 말했다. “안 돼요, 아빠. 제발 아무 말
 마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알고
 있고, 선생님들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꾸이르씨 형제만 말을 하게 놓아
 두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한동안 조용히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영의 요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강 연 후에 나는
 일어나서
 우리 믿음에
 대해 전해진 내용을
 명백히 하도록 내게
 지시하는 영을 느꼈다.

나는 내게 온
 느낌에 대해
 가족에게 다시
 말했다고, 아들은
 내가 일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을 계속해서 나타냈다.
 마침내, 영의 영향을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던 나는 천천히 일어나서 꾸이르씨
 형제와 합세하기 위해 강연회장 뒤쪽으로
 돌아갔다. 군중들이 놀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물론이 또 있어.”

꾸이르씨 형제가 결말을 짓는 동안
 나는 필기한 내용을 꺼내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머니는
 비어 있었다. 필기한 내용을 자리에 두고
 왔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내가 연단에
 설 차례가 되었다.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말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나는 내가 2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었으며, 이 교회가 지상에 있는
 유일한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 교회를 회복했으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라고 말함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얼마 동안 이야기했고, 또 무슨
 말을 했는지 전부 기억하지는 못한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단지 압도적인 침묵,
 그리고 내게 쏟아진 500명의 눈길뿐이다.
 이야기를 끝낸 후, 나는 내 믿음에 대해
 말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참석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한 다음 돌아서서 그
 방을 떠났다. 나는 평화를 느꼈지만 내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다.

모임이 끝나고 가족과 다시 만났을 때,
 아들이 내게 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빠, 아빠는 옳은 일을 하셨어요.
 아름다운 간증을 전해 주셨고, 권능과
 권세를 갖고 말씀하셨어요.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내가 한 일 때문에 학교에서 곤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파블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버지가 기꺼이
 복음을 옹호할 수 있는 간증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 더욱
 중요했던 것이다. ■



질문에 대한 답

제가 베네수엘라에서 봉사했을 때 저와 제 동반자는 수많은 교회를 찾아 다녔지만 아직도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어떤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교회에 대해 우리가 가르쳤던 모든 것을 좋아했지만,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았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의 의문들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을 때 빈 벤치에서 리아호나를 발견했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읽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침례 일자를 정했습니다. 리아호나에 감사합니다!

호르단 에베스 장로, 칠레 비냐델마르 선교부

성전 방문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성전이 일반인에게 공개

중이었을 때 저는 그곳에 갔고, 성전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말하기 위해 편지를 꼭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세부 장식 하나 하나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관심과 경의가 담긴 대우를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다고 느꼈습니다. 방들은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각 방에서 저는 형언할 수 없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해의 왕국실은 거의 천국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느꼈던 순수한 사랑 때문에 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종교에 속해 있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주를 믿는 신앙과 평화 속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리사 프레티 페레이라, 브라질

세상을 보는 창

여러분이 이루어 내는 놀라운 일에 대해 인사와 감사를 전합니다. 리아호나는 우리 나라를 포함한 이 지구촌 곳곳에 닿을 수

있게 해 주는,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더불어 인터넷에서 스페인어로 된 교회 출판물을 찾을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후안 시 지메네스 가족, 파라과이

꾸준한 애독자

여러분이 만드는 훌륭한 잡지의 꾸준한 애독자로서, 저는 매달 잡지가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리아호나에 인쇄하는 내용, 즉 교회 지도자들의 글, 그분들의 연차 대회 말씀, 기사, 독자들의 편지, 그리고 그 밖의 내용은 모두 저를 고양시켜 주며 영감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들은 제 영, 마음, 정신을 키워 줍니다.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대한 답과 인생에서 겪게 되는 다양각색의 상황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내용이 강하고 살아 있는 간증을 전해 줍니다. 누구라도, 심지어 가장 회의적인 독자일지라도 이 잡지에 담긴 영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아체슬라프 구레예프, 러시아

다음 호 예고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시대와 모든 땅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상징을 통한 것입니다. 2월호에는 상징에 대한 두 가지 기사가 실릴 예정입니다. 하나는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특히 성전에서 가르치시고자 왜, 그리고 어떻게 상징을 사용하시는데 대한 총관리 역원들과 후기 성도 학자들의 인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성전 예배와 관련된 회원들의 경험담이 실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룰 것입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 교수인 저자는 이 비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그분의 교회가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상징으로서 간주하는 초기 기독교적인 해석을 몇 가지 나눕니다.



친구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몬슨 회장이 굴욕감으로
시작했지만 커다란 교훈으로
끝났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나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여러분 중 일부와 마찬가지로 저도 젊은 시절에 실망과 굴욕을 겪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제가 소년이었을 때,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팀으로 나뉘어 하는 소프트볼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를 할 때, 우선 두 명의 주장을 뽑고, 그들은 자기 팀에 넣고 싶은 선수들을 번갈아 가며 선택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선수가 먼저 뽑혔고, 그런 다음 두 번째, 세 번째가 뽑혔습니다. 네다섯 번째로 선발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뽑혀서 외야의 먼 위치로 가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제가 그 입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공이 제발 제가 있는 쪽으로 날아오지 않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저는 그 공을 떨어뜨리고, 주자들은 점수를 올리고, 팀 동료들은 저를 비웃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을 바꿔놓았던 그 순간을 저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뽑혔습니다. 오른쪽 외야의 깊숙한 곳으로 저는 쓸쓸히 나갔고, 다른 팀 주자들이 베이스를 꼭 채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두 명의 타자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 타자가 큰 타구를 날렸습니다. 그 타자가 “이번에는 홈런이 될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공이 제 방향으로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저를 창피하게 했습니다. 내 손이 닿을 수 있을까?

저는 공이 떨어질 곳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향해 달렸고, 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컵 모양으로 하고 위로 내밀었습니다. 제 자신도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공을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 팀이 승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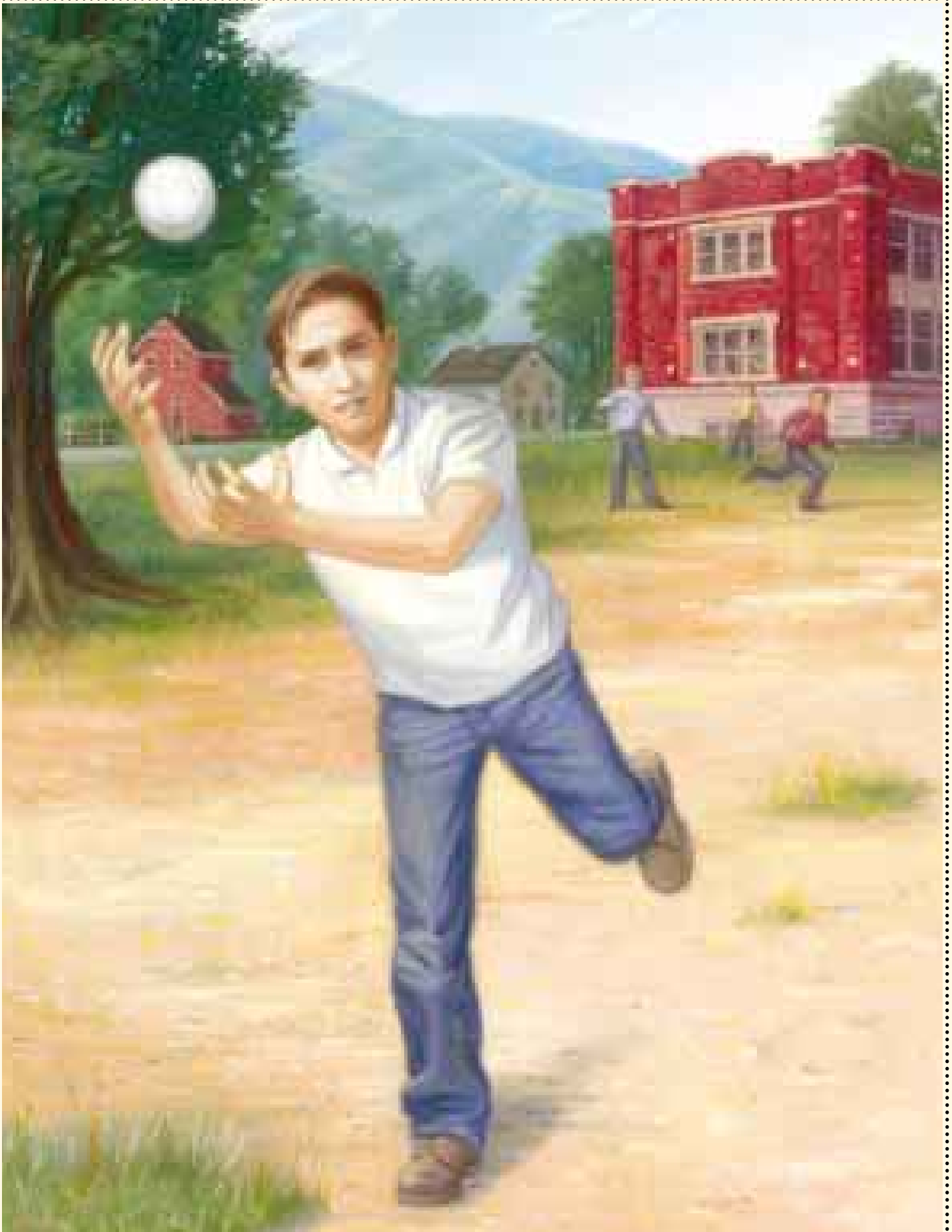
이 한 번의 경험은 제 자신감을 키워 주고, 연습하고자 하는 소망을 북돋워 주었으며, 마지막으로 선발되는 처지에서 팀에 실제로 기여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것처럼 자신감으로 가득 차게 되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세 단어로 된 이 공식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2005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생각해 볼 점

1. 몬슨 회장은 그 공을 잡은 후 왜 경기를 더 잘 하게 되었을까? 갑자기 재능이 더 많아졌을까? 극적으로 공을 잡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도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2. 마지막 선수로 뽑혔을 때 극적으로 멋진 볼을 잡지 못한다면, 또는 달리기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온다면 기분이 어떨까? 여러분이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3. 인생에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4. 여러분이 팀을 선택할 차례가 될 때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도록 영향을 주는가?





부기
부기

부기
부기

부기
부기

부기
부기

두려워 말라

“만일 너희에게 신앙이 있으면 너희는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느니라.” (앨마서 32:21)

엘리자베스 리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급히 흐르는 시냇물을 건너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구주께서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두려울까요?

이 아름다운 그림의 제목은 **두려워 말라**입니다. 그림 속에 있는 어린이들은 구주께서 그들을 도와 다른 편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인 그렉 올슨 형제는 그림 속의 어린이들은 우리 각자를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냇물은 우리 모두가 거치는 힘든 시련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의무를 다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높은 곳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면 구주께서는 우리를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닐 때, 우리는 우리가 삶의 여행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겸손하고 신앙을 지니면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12:10 참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니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활동

친4쪽에 있는 그림과 액자의 부분들을 두꺼운 종이에 풀로 붙인다. 그림과 액자 부분들을 오려 내고, 액자를 만들기 위해 모서리들을 풀이나 테이프로 서로 붙인다. 그림에 액자를 씌우고 테이프로 풀로 고정시킨다. **두려워 말라**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항상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장소에 둔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손을 잡기 위해 위로 손을 내밀고 있는 어린이라고, 또는 여러분이 그분의 품에 안전하게 안겨 있다고 상상해 본다.

주: 리아호나에서 책장을 떼어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베끼거나 인터넷 www.lds.org에서 인쇄할 수 있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세계 지도를 클릭한다.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비록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의지와 탁자, 그리고 그 밖의 물건을 이용하여 길을 만든다. 길을 따라 걸을 어린이 한 명을 선정한다. 그런 다음 눈을 가리도록 지원할 다른 어린이가 있는지 묻는다. 눈을 가린 어린이가 길을 따라 걷게 한다. 여러분이 길을 다시 배열할 것이라 설명한 다음, 그 길을 눈을 가리고 걷겠다고 지원할 다른 어린이가 있는지 묻는다. 지원한 어린이에게 눈을 가리지 않을 친구 한 명을 안내자로 택하라고 한다. 두 어린이들이 방에서 나가 있게 한다. 길을 다시 배열한다. 눈을 가린 어린이의 친구가 길에서 그 어린이를 인도하게 한다. 안내자는 말을 해서 길을 인도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그 어린이의 팔을 잡아 줄 수도 있다. 매번 진로를 바꾸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반복한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도와줄 안내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안내자를 선택해야 한다. 최고의 안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간증한다.

2.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여러분이 양말을 신기 전에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섯 살 때 대학교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순서대로 일을 하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 토론한다.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가 무엇인지 어린이들에게 묻는다. 그들에게 신앙개조에서 답을 찾아보게 한다.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는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설명한다. 회개, 신권, 또는 십일조와 같은 그 밖의 중요한 원리보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첫째 되는 원리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다음 그림들을 전시한다. 복음 그림 패킷 100 (창조-생물), 243 (물 위를 걸으시는 그리스도), 318 (주님의 손가락을 본 야벳의 동생), 412 (평원을 횡단하는 매리 필딩과 조셉 에프 스미스). 각각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핀다. 이야기가 끝난 후 어린이들에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기 전에 무엇이 필요했습니까?”와 같은 질문을 한다. 어린이들이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대답하게 한다. 각 이야기를 반복한다. ●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생애에서

농장에서 일함



어느 날, 와드의 한 형제가 스펜서의 아버지에게 팔기 위해 돼지 사료용 호박 한 무더기를 갖고 들렀습니다.

스펜서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드님이 행복한가 봅니다.

맞아요. 스펜서는 행복하고, 깨끗하고, 순종하는 아이예요. 교회에서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스펜서는 매일 소젖을 짜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성구 외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한 헛간에 사는 고양이의 입에 정확히 맞추어 우유를 흘려 넣을 수 있게 겨냥하는 연습도 좋아했습니다.



어린 스펜서는 농장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는 언제 멈춰야 할지도 알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는 주중에 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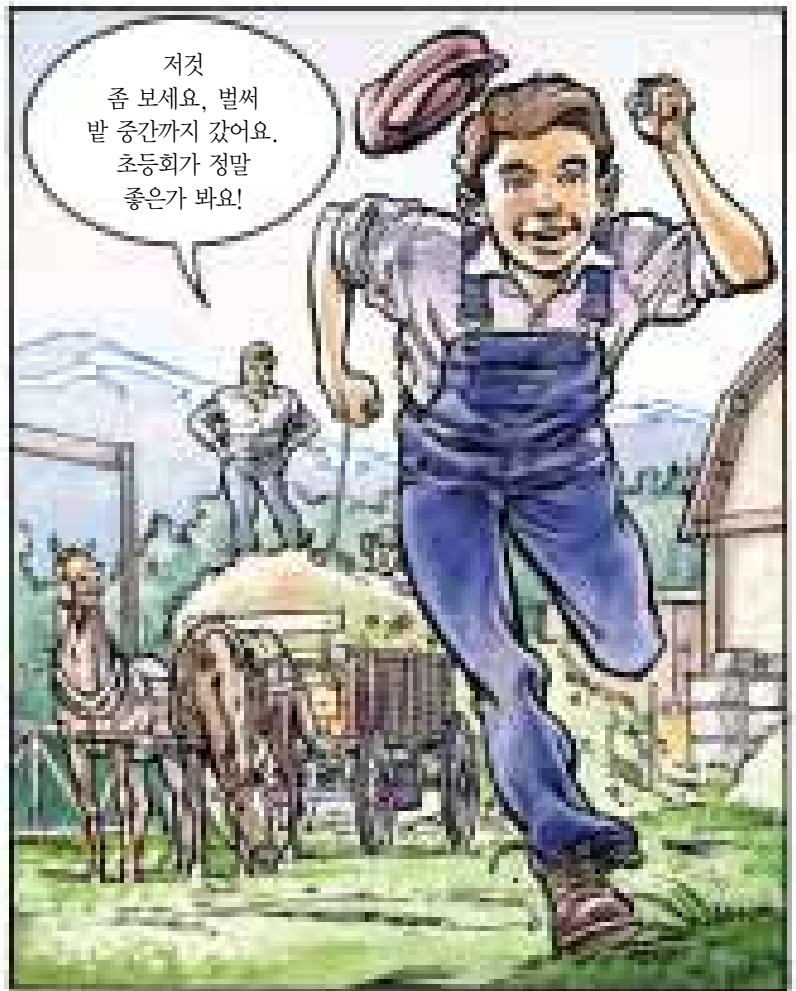
초등학교 종소리가 들리네. 초등학교에 갈 시간이야.

가면 안 돼, 스펜서. 진초를 다 밟으려면 네가 있어야 해.



스펜서,
무슨 일이니?

스펜서?



저것
좀 보세요, 벌써
밭 중간까지 갔어요.
초등회가 정말
좋은가 봐요!



스펜서는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사도로서 그는 자주 스테이크 대회를 위해 여행하고 회원들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스�펜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도 봉사했습니다.

작업복을
좀 빌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김블 장로님, 장로님은
손님이십니다. 장로님이
허드렛일을 하시다니 당치도
않습니다.

제가 돕도록 해
주신다면 소젖을 짜는 일이
더 빨리 끝날 걸요!

신약전서



신약전서에는 27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약전서의 내용을 설명하는 조그만 책을 만들기 위해 실선을 따라 사각형을 오려냅니다. 사각형 왼쪽 위 모서리에 있는 점에 구멍을 뚫습니다. 숫자 순으로 사각형을 정렬합니다. 구멍 속으로

실, 끈, 또는 가느다란 리본을 끼워서 떨어지지 않게 한 다음 매듭으로 묶습니다.

주: 리야호나에서 책장을 떼어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베끼거나 인터넷 www.lds.org에서 인쇄할 수 있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세계 지도를 클릭한다.

신약전서

1.

복음 또는 증언

신약전서의 첫 부분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음 또는 증언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 네 권의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와 가르침, 십자가에 달리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 3.

사도행전

신약전서의 두 번째 부분에는 사도행전 단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는지 알려 줍니다.



● 5.

서한 또는 편지

신약전서의 세 번째 부분은 서한 또는 편지라 부릅니다. 여기에는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여러 지부에 보낸 복음의 원리와 그에 따라 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편지 중 몇 통이 들어 있습니다. 이 편지 가운데 일부는 성도들이 살았던 도시를 따라서 이름 지어졌으며, 일부는 그것을 쓴 저자를 따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 7.

요한계시록

신약전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요한계시록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은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 지구 역사의 모든 시대에 걸친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 말해 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 복천년, 그리고 지구가 해의 왕국이 될 시기에 대해서도 말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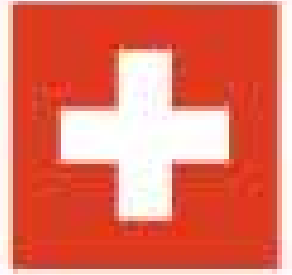
친구 사귀기

저는 좋은 곳에 있어요!

나오미 후그, 스위스 뮌헨스타인

김벌리 웹
교회 잡지





나 오미 후그와 그녀의 와드는 열 살, 같은 나이입니다. 와드가 생긴 지 열 번째 되는 기념일에 나오미는 처음으로 성찬식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울음이 나올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이 너무 강해서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말할 수조차 없다.”라고 그 날 일지에 적었습니다. 나오미는 와드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교회에 다닌 것에 대해 감사해요. 저는 좋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나오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스위스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능과 간증과 미소를 나누는 것으로 그곳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꽃을 꺾어 꽃꽂이를 하는 것입니다. 꽃집을 하시는 나오미의 할머니는 나오미가 돕도록 해 주십니다. 할머니께 가장 좋아하는 꽃이 있는지 물으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고, 이마에는 주름이 잡힙니다. “있지, 하지만 이름이 뭔지 모르겠구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뮌헨스타인에서 차로 약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졸리코펜에 살고 계십니다. 외할아버지는 졸리코펜에 있는 스위스 베른 성전의 회장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온 가족이 그곳을 방문하며, 거기서 나오미는 친척들을 만나고 성전을 봅니다.

나오미에게는 네 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나타샤는 아홉 살, 마리카는 다섯 살, 시냐는 네 살, 피에라는 두 살입니다. 여동생들이 있어서 제일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놀고 싶을 때 같이 놀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라고 나오미는 말합니다.

나오미와 나타샤는 뒷마당에서 구슬치기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타샤는 제일 좋아하는 구슬을 언니나 동생들이 따 가면 실망스럽다고 말합니다.

이 자매들은 함께 음악 연주를 즐깁니다. 나오미는 드럼을 치고, 나타샤는 파이프(역자 주: 플루트 비슷한 악기)를 불니다. 두 사람은 클리켄, 즉 어린이 악대와 함께 한 해 내내 악기

연주를 연습한 다음 2월에 공연을 합니다. 이때 스위스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겨울을 멀리 내쫓고 봄을 맞이하는 3일간의 축제를 보냅니다. 이때 나타샤와 나오미는



스위스 베른 성전. 이곳은
나오미가 가족과 함께
방문하기를 좋아하는
곳이다. 아래: 가정의 밤
벤치에 앉아 있는 후그
가족.

의상을 차려 입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바젤의 거리를 누비고
다닌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독일 사이 국경 너머에
있는 바젤은 나오미의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거의
1,000년 된 거리를
돌아다니고, 라인 강을 따라
떠가는 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스위스에는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로만시어 이렇게 네 가지 공용 언어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이 영어를
배우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독일어와 영어를 하지만 여러 권의
일지에는 독일어로 글을 씁니다. 일지는 나오미가
초등학교 말씀, 침례식과 같은 중요한 행사들을
기록하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는 나오미는 기분이 들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안 가 부모님들이 더 이상 나오미
앞에서 비밀 이야기를 프랑스어로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후그 가족은 집안에서 항상 그렇듯 가정의
밤을 하는 동안에 영어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영어를 좀 더 유창하게 말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밤을 할 때
그들은 종종 집 옆의 숲에 있는 벤치까지 산책을
합니다. 그들은 그 벤치를 “가정의 밤 벤치”라고
부릅니다. 이 산책은 나오미의 어머니가 어린
소녀였을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가족들이
좋아하는 전통입니다.

어떤 언어로 말하든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은
사랑과 친절이 담긴 말을 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좋은 곳을 집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

세상이 너무 무섭게 느껴질 때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니십시오.

★ 세상에 관계없이 그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경전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 모든 시대에서 우리는 선택과 마주칩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을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높은 곳으로 여행을 하여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 올바른 일을 부지런히 행하십시오. 주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들의 생활 방식을 따를
때 평화와 희망이 찾아옵니다.

★ 때때로 세상은 어둡게 보입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의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 힘을 내십시오. 신앙과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Hope and Faith", Ensign, 2005년 2월호, 20쪽: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82쪽:
"더 높은 곳으로의 여행",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16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틴 장로가
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눕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칼 하인리히, 덴마크 황제비드
프레데릭스보르에 있는
국립 역사 박물관 제공

“두려워 말라. 이는 나 주가 너희와 함께 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임이니.” (고리와 성약 68:6)

두려움의 반대

파트리셔 알 존즈

실화에 근거함

트리시아는 눈물이 가득 찬 눈을 크게 뜨고 침실 옷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고장나서 끝까지 닫히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들은 마치 옷걸이에서 뛰어내려 달려들 듯 잔뜩 웅크리고 있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트리시아는 옷장에서 나오는 것 같은 거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트리시아는 어린이들을 해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옷장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트리시아는 유치원에서 같은 반에 있는 한 소년인 악몽에 대해 했던 이야기도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는 매우 긴 꼬리가 달린 뱀에게 쫓겼습니다. 뱀이 그 아이를 잡아 꼼짝 못하게 휘감았다고 했습니다.

친자매인 매리앤과 레베카가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지만, 트리시아는 그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옷장 속에 숨어 있는 것이 공격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트리시아는 텔레비전 소리가 잠잠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뉴스를 다 보고 침실로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리시아는 부모님께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트리시아는 너무 무서워서 울고 싶었지만, 소리를 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옷장에서 숨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자기를 잡아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둠과 섬뜩한 옷장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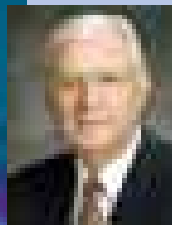
그러는 동안 트리시아의 마음속에 조용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게 어떨까?” 트리시아는 즉시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고 엄마가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을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트리시아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말하자마자, 평온한 느낌이 다가왔습니다. 트리시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더욱 차분해졌습니다. 무서운 숨소리도 이제 전혀 크지 않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리시아 자신의 숨소리가 점점 더 작아지자 옷장에서 나는 숨소리도 작아졌습니다. 트리시아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숨소리도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마침내 트리시아는 자기의 숨소리를 두려워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트리시아는 약간 부끄러웠지만 그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자마자 무서운 생각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그런 생각들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아빠가 말씀해 주셨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트리시아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사탄이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야. 사람들은 두려워할 때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니까.”

트리시아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도를 들어 주시고 또 두려움을 이겨 내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끝냈을 때, 트리시아는 조용히 “나더러 세상 빛 되라”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눈을 감기가 두렵지 않았고, 음악과 가사는 트리시아를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잠시 후 트리시아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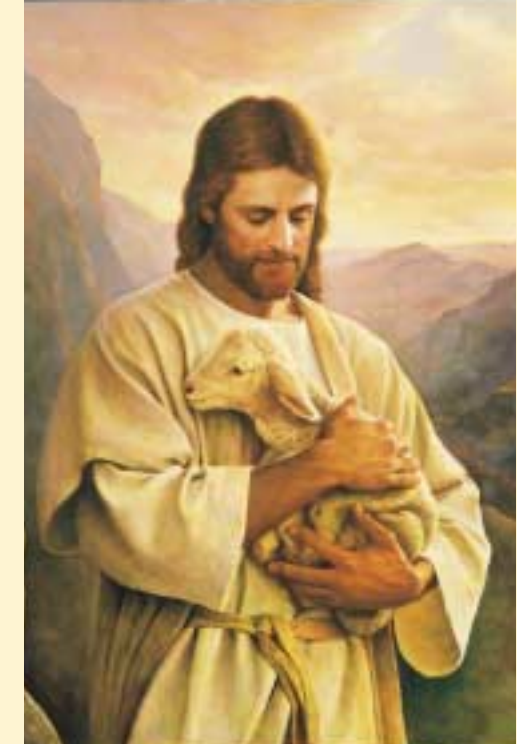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여러분과 저에게 ...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가져다 줄 영적인 힘의 근원이 됩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심이사도 정원회, “우리의 주님이신 구주”, *성도의 빛*, 1997년 12월호, 14쪽; “여러분이 여행에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57쪽.

색칠하기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신앙이 있으면 너희는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느니라.” (엢마서 32:21)



말야버린 어린양, 올 파슨, 복사 금지

신앙으로 주님 따르리

“또 보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시나니, 이는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구원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사이야서 3:9)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지니고, 그분이 지상에 계셨을 때 우리를 위해 보이신 모범을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올해의 포스터를 잡지에서 떼어 내어 구주에 대해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할 장소를 여러분의 방에서 선택하여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매호에서 여러분은 한 가지 주제와 성구가 있는 색칠하기 페이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림을 색칠하여 포스터 근처에 걸어 놓으십시오. 그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간증을 발전시키고, 구주를 따르고, 그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교회 배부 센터에서 포스터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물품 번호 01659)

© 2007 by Intellectual Reserve, Inc.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러

“또 보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시나니, 이는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구원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사이사서 3:9)



사진 촬영: 키이스 존슨/DESERET MORNING NEWS



슬트레이크 홀러데이 남 스테이크 홀러데이 제 4 와드에 있는 수 기기 자매(왼쪽)는 낸시 그라프 자매가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해 질문하는 동안 귀를 기울이고 있다. 기기 자매는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가족 역사 소프트웨어 교육을 도왔다.

상호부조회, 열성적으로 강화 프로그램 진행

줄리 닥스테이더 힉스, Church News 기자

단 합된 자매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을 강화함. 이는 바로 지난 1월,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단의 보니 디 파킨, 캐서린 에이치 휴즈, 그리고 앤 시 핑그리 자매가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활동을 위해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활동이 여성들이 가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뿐 아니라 함께 모여 우정을 쌓을 수 있는 비공식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참여하는 자매들과 지도자들은 열성을 보입니다.” 라고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를 감독하는 핑그리 자매가 말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개인과 가족 그리고 와드 모두가 축복받게 됩니다.”

핑그리 자매는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과 활동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2005년 8월

제일회장단 서신을 언급하며, 본부 회장단은 교회 도처에서 받는 보고서를 통해 자매들이 “어떻게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활동을 통해 가족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침]은 지역적 차원에서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본부 위원회 위원인 코니 캐넌 자매와 헬렌 티리어트 자매가 함께한 Church News와의 모임에서, 핑그리 자매는 지역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강화 활동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해당 와드 또는 지부에 속한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결정한다.
- 자매들의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 지역 신권 지도자들이 관여하도록 한다. 감독과 지부 회장은 개인과 가족의 필요 사항에 대한

훌륭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 목적을 가지고 기도으로써 계획한다.

상호부조회 본부 사무실에 전해지는 많은 사례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미주리 주 세인트 로버트 스테이크 휴스턴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장인 게일 맥하디 자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 보좌들과 함께 기도를 했다. “영은 우리를 돕기 위해 분명 그곳에 있었습니다.”라고 그녀는 전화 통화에서 말했다.

기도를 한 후, 그녀는 지부 회장의 도움으로 지부의 자매들에게 떠오른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그녀는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이 미국식 수화 교실인 것에 놀랐다. 수화를 배운 적이 있는 지부의 한 자매가 수업을 가르치는 데 동의했다.

“지부 회장님은 머지않아 합창단이 노래할 때 그 자매들이 함께 수화를 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셨습니다.”라고 맥하디 자매는 말했다. 맥하디 자매는 한 자매가 최근 교회에서 다시 활동하게 되었는데 수화 교실을 통해 “그녀가 상호부조회에서 훨씬 더 큰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솔트레이크 홀러데이 남 스테이크, 홀러데이 제4 와드의 강화 활동 지도자인 수 개스킬 자매는 와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했다. 수 기기 자매와 줄리 롤링스 자매의 컴퓨터 기술을 살려 와드에서는 가족 역사 사업을 시작했다. 기기 자매와 롤링스 자매는 다른 자매들의 집을 방문해 가족 역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고 시작하는 방법을 보여 주었다. 2006년 9월 12일, 와드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성전에 참석하여 각각 적어도 한 명의 조상을 위한 의식을 받았다.

개스킬 자매는 외출할 수 없는 자매들

과 점심 식사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영이 인도하는 대로 즐거우면서도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은 젊은 자매들이 “상호부조회가 얼마나 즐거운지 깨닫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교회 전체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그 밖의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다.

자매들에게 아이들 머리 손질, 요리 및 기본적인 바느질을 가르쳐 가족 생활비에 도움을 주고 있는 멕시코의 한 지부.

정숙한 파티 드레스 재봉 수업을 제공하는 아이다호 주 블랙풋의 한 와드.

많은 신혼 부부들에게 결혼 생활 강화 및 예산에 따라 생활하는 법을 가르치는

솔트레이크시티의 한 와드.

스페인어를 하는 아이들과 어머니들에게 영어 가르치기를 돕는 애리조나의 한 스테이크.

취업 교실을 제공하는 솔트레이크시티의 한 독신 성인 와드.

“저는 자매들을 강화해 주고 들어 올려 주며 가족들 또한 강화해 주는 우정과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각자의 삶과 우리 가정 안에서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핑그리 자매는 말했다. ■

2006년 8월 19일자 Church News에서 발췌.

유럽의 열 번째 성전 개방

교회는 2006년 8월 유럽에서 열 번째이자 핀란드에서는 첫 번째인 성전을 핀란드 헬싱키에서 완공했다.

2006년 9월 21부터 10월 7일까지 두 주 동안의 일반 공개 행사 동안 일반인들이 성전을 둘러보았다. 이 성전을 이용할 지역 내 후기 성도들을 위해 네 차례의 헌납식이 진행되었다.

성전 헌납과 함께, 2006년 10월 21일 헬싱키에서는 지역 전역의 교회 회원들을 위해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문화 행사가 열렸다.

성전은 합당한 회원들이 성스러운 성약과 의식에 참여함에 따라 성전 축복을 받고 필멸 이전의 생과 이 생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추적인 역할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해 준다.

“각각의 성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상징이고 죽음 이후의 생에 대한 우리 신앙의 증거입니다.”라고 십이사도 정원회

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말했다. “성전은 교회의 모든 활동, 모든 공과, 모든 진보적인 발전의 목표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죽은 자를 구속하는 데 쏟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합니다.”(“Prepare for Blessings of the Temple”, *Ensign*, 2002년 3월호, 17쪽)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로루시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하는 헬싱키 성전 지역의 약 26,000명의 회원들은 이제 성전이 주는 축복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핀란드에는 4,500명 이상의 교회 회원이 살고 있다. 핀란드의 선교 사업은 180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스웨덴에서 온 선교사들은 1876년 바사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해 핀란드 최초의 개종자들이 침례 받았으며 1886년까지 스웨덴어를 하는 핀란드인 25명이 침례 받았다. 핀란드 선교부는 1947년에 조직되



헬싱키 핀란드 성전

있으며, 당시 핀란드에는 단지 129명의 회원만이 있었다. 이후 7년 동안 교회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고 몰몬경이 핀란드어로 번역되었다. 헬싱키 스테이크는 3,462명의 회원으로 1977년 10월에 조직되었다.

헬싱키 핀란드 성전은 2000년 4월 2일, 제170차 교회 연차 대회 중에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기공식은 2003년 3월 29일 헬싱키의 교외 지역인 에스푸 시 카라칼리오에서 열렸다. 핀란드 성전은 세계에서 124번째로 운영 중인 성전이며 북유럽 국가 중에서는 3번째이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성전과 덴마크의 코펜하겐 성전은 각각 1985년과 2004년에 완공되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성전들은 다른 모든 건물들과는 분명 다릅니다. 성전은 가르침의 집입니다. 그곳은 성약과 약속의 장소입니다. 성전 제단에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영원무궁

한 축복을 약속 받습니다. 그 약속의 성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아들,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자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셔서 우리 모두의 대리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기심은 접어 두고 스스로 의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봉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신권 권능을 통해 인간 관계 중 가장 신성한 관계로 결합됩니다. 즉,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시간이 파괴하거나 죽음이 끊어 놓을 수 없는 인봉으로 엮어진 가족으로 말입니다.

“이 성스러운 건물들은 후기 성도들이 가치없이 쫓겨나서 박해를 받았던 암흑기 동안에도 건립되었습니다. 궁핍한 시기에 도 번영한 시기에도 건립되고 운영되었습니다. 성전은 살아 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선지자, 신성한 계시, 그리고 평화에 대해 증거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살아 있는 신앙과 주님의

집에서만 찾을 수 있는 영원한 축복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옵니다.”(“Why These Temples?” *Tambuli*, 1992년 6월호, 2쪽; *Ensign*, 1974년 8월호, 37쪽) ■

교회 부서, 현명한 재정 관리를 위한 책자 제작

고든 비 힝클리 회장과 그 밖의 교회 지도자들은 자립, 부채 그리고 현명한 재정 관리에 대해 여러 차례 권고해 왔으며 교회의 복지 사업부는 교회 회원들이 그 권고를 따르는 데 도움이 될 도구를 만들었다.

2001년 10월에 힝클리 회장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무거운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저는 이 교회의 회원인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부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궁핍할 때를 대비하여 약간의 돈을 저축해 두실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84~85쪽)

새로운 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난 소책자, *One for the Money: Guide to Family Finance*는 회원들이 채무에 대해 이해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다.

“교회 회원들 또한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복지 사업부 감독을 맡고 있는 테니스 리퍼스 형제는 말했다. “교회 초창기부터 우리는 자립할 것과 수입 범위 안에서 생활할 것을 권고받아 왔습니다.”

*One for the Money: Guide to Family Finance*의 내용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1915~1994년) 장로가 1975년 4월 복지 사업 모임에서

한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그 내용이 소책자로서 마지막으로 출판된 것은 1992년이었다. 새로운 디자인은 도표도 포함하고 지면 배정도 새로와졌으며, 애쉬톤 장로의 말씀이 읽는 이에게 좀 더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새 책자는 애쉬톤 장로가 요약한, 시대를 넘어선 12가지 원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1. 정직한 십일조를 내십시오.
2. 돈이 여러분을 관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3.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 자기 수양과 자제를 배우십시오.
4. 예산을 세우십시오.
5. 가족 구성원들에게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조기에 가르치십시오.
6. 자녀들의 이해력을 고려하여 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7. 가족 각자가 가족 전체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8. 교육이 지속적인 과정이 되도록 하십시오.
9.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10. 적절한 선에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십시오.

11. 가족의 재정 상태와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인을 파악하십시오.

12. 식품 비축 및 비상시 대처 프로그램에 적절히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교회는 이 책자를 한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등 10개 언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새 책자는 교회 배부 센터, 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ldscatalog.com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다. 전자 파일로 된 새 책자와 그 밖의 재정 관리 자료는 providentliving.org에서 이용 가능하다.

헝클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빚을 모두 갚고 난 뒤, 비록 아주 적은 액수라도 저축해 놓은 돈이 있다면, 그때는 모진 풍파가 여러분의 가정에 몰아닥쳐도, 여러분은 아내와 자녀들을 지켜 줄 보호막을 갖게 될 것이며, 마음에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이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조하여 말하고 싶습니다.”(“청남과 성인 형제들에게”,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54쪽) ■

소책자는 구도자들에게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생각하면서 참조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3장에 나오는 첫 세 토론과 부합하는 이 소책자는 선교사들이 떠난 후 떠오를 수 있는 질문에 답하고 다음 토론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각각의 소책자들은 *회복*,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며, 각 토론에 담긴 원리들에 대한 요약과 탐구할 만한 질문들,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는 작은 책자이다.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있고, 일요일 모임에 대한 개요는 구도자들이 모임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알게 해 주며, 결심 사항 목록은 경전 공부에 대한 안내를 수록하고 있고 추가 학습 자료에 대해 알려 준다.

전세계 선교부들은 2006년에 영어로 된 책자를 받았다. 선교사들은 토론을 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와 함께 사용하도록 제작된 새 소책자들은 교회에 대해 배우는 구도자들에게 나눠 줄 수 있다.

교회에 대해 배우는 이들을 돕는 세 가지 새로운 소책자

세 가지 새로운 선교 소책자의 편찬으로, 구도자들은 이제 선교사들과의 첫 세 토론을 각각 마칠 때마다 읽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인쇄물을 받게 될 것이다.

“토론이 끝날 때마다, 구도자들은 무언가 읽을 것을 받게 됩니다.”라고 고든 비헝클리 회장은 첫 번째 전세계 지도자 훈

련 모임에서 말했다. “그것은 물론 경의 지정된 장일 수도 있고 다른 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도자가 읽고, 고민하고, 숙고하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무언가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1월, 20쪽)

비할 때 그 소책자들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 참고하도록 권고 받았다. 각 책자는 그림과 사진을 포함하고 있어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선교사들은 책자를 통해 구도자들에게 결심한 것에 대해 상기시켜 줄 수 있고, 구도자들을 교회에 초대할 수 있으며 mormon.org를 소개할 수도 있다. 회원들은 가족 및 친구들과 이 책자를 함께 나누도록 권고 받는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운동의 일환으로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이 소책자들은 현재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안내서가 출판된 언어, 즉 총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중이다.

소책자는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배부 센터나 ldscatalog.com에서 25권 묶음을 미화 \$2.50에 살 수 있다. ■

16일, 팔라우 보건부가 교회가 기증한 새 휠체어를 주니어에게 준 그날 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제 주니어는 일요일에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이후에는 운동 경기도 관람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나단 레멘게사우 역시 새 휠체어가 준 축복에 대해 감사한다. 그는 2002년 당뇨병으로 인해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그의 낡은 휠체어가 결국 작동을 멈췄을 때 그는 새것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았다. 그는 새 휠체어가 너무 비싸 낙심했다. 새 휠체어는 일반적으로 미화 700달러 이상이었으며, 이는 그의 정해진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낡은 휠체어의 합판 시트는 그의 다리에 쏠려 쓰러린 상처를 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희망을 버리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무료로 휠체어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을 듣고 기뻐했다.

“누군가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저를 도와준 건 처음이에요.”라고 그는 새 휠체어에 앉아 말했다.

10살 된 디라인가스 에데야오치의 첫 번째 휠체어는 교회가 최근에 기증한 것이었다. 휠체어를 기증받기 전에 이 소녀는 어디로 가든지 누군가에게 안겨 가야만 했다. 에데야오치가 커 가면서 사람들이 그녀를 안고 가는 것은 점점 어려워졌다. 이제 소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무척 좋아하는 풍경이 있는 곳으로 그녀를 데리고 갈 계획이다.

이 몇 가지 이야기는 교회로부터 휠체어를 받았을 때 새로운 자유를 얻은 팔라우의 많은 사람들 중 단지 세 명의 이야기일 뿐이다.

복지부의 빅토르 야노 장관은 250대의 휠체어를 기증한 것은 팔라우 사람들

교회, 팔라우에 기동력과 자유를 전하다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교회는 매년 70개국에 40,000대의 휠체어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8월, 교회는 필리핀 남동쪽으로 몇 백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나라 팔라우에 새 휠체어 250대를 기증했다. 이 프로그램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으며, 그 수많은

수혜자들의 개인적인 필요 사항과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인해 이 휠체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다른 교회의 회원인 주니어 세나르도는 14년 전 사고로 목에 충격을 받아 마비되었다. 이 부상으로 그는 늘 침대 신세를 져야 했고 간단하고 일상적인 일도 다른 이들에게 의지해야 했다. 2006년 8월



디라인가스 에데야오치 자매가 새 휠체어를 받은 후 교회 서비스 센터 책임자인 빌 데이비스 형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에게 큰 축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정된 수입에 오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료로 휠체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교회에 감사를 돌렸다. 그는 교회를 대표한 코로르 탐사이드 지부의 레블루드 케슬레이 지부 회장과 광 서비스 센터 책임자인 빌 데이비스 형제에게 팔라우 사람들을 위해 기증을 주선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휠체어 기증은 전세계에 걸쳐 교회가

활동적으로 관여해 온 여러 인도주의적 구제 및 개발 활동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교회 회원들과 그 외 사람들의 기부로 교회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의 자금이 충당된다. 이 프로그램은 고통을 완화하고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도우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적과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들과 가족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

3. 난 하나님의 자녀
당신 뜻 행하면
영원히 살수 있다는
축복이 크도다

본부 초등학교 임원회 위원과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보좌로 봉사한 나오미 더블류랜들 자매는 본부 초등학교 임원회의 요청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의 작사를 맡았다. 작곡은 본부 초등학교 임원회 위원으로 봉사한 또 한 명의 자매인 밀드레드 티페티트 자매가 맡았다.

랜들 자매는 곡에 맞춰 가사를 짓는 과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날 저녁,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적절한 가사를 제게 알려 주시기를 간청하며 무릎을 꿇고 앉아 소리 내어 기도했습니다. 새벽 2시경, 저는 잠에서 깨어나 다시 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사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 저는 즉시 일어나 떠오르는 대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3절의 가사와 후렴구가 이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50주년이 된 사랑 받는 찬송가

애비 올슨, 교회 잡지

찬 송가 “난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는 온 지구에 울려 퍼졌고, 1957년 이래로 전세계의 성인들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그 음률과 가사를 노래해 왔다.

이 곡을 기념하는 50주년이 다가오는 현재, 곡은 90개 이상의 언어로 출판되었으며 계속 많은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다.

세 절의 가사로 구성된 이 찬송가의 메시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 또는 딸이며 영원한 가능성을 가지고 지상에 왔다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준다. 부모와 교사들은 영생과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필멸의 삶 속에서 어린이들이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권고를 받았다.

찬송가 가사는 다음과 같다.

1. 난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
부모와 함께 살도록
가정을 주셨네
[후렴]
길을 찾아 가게 저를

도와 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

2. 난 하나님의 자녀
나 비록 어려도
말씀해 주신 복음을
알게 해 주소서



이제 50주년이 된 사랑 받는 찬송가 ‘난 하나님의 자녀’는 전세계 90개 이상의 언어로 불려진다.

마음으로 가사를 검토했고, 그 가사가 전하는 메시지에 취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위해 침실로 돌아갔습니다.”(카렌 린 데이비스, *Our Latter-day Hymns*(1998년), 303~304쪽)

랜들 자매는 페티트 자매에게 가사를 보냈고, 그녀는 음악을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원래 후렴구 첫 줄의 가사는 “제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소서”이다. 노래가 쓰여지고 난 후,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이 그 노래를 불렀던 대회에 참석하였다. 그는 나중에 랜들 자매에게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소서”를 “제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소서”로 바꾸는 것에 찬성하는지 물었고, 그리하여 지금의 가사가 완성되었다.(역자 주: 한국어 찬송가에는 음률을 맞추기 위해 다른 가사가 적용되어 있다.)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김볼 회장은 말했다. “악마는 알고 있지만 두려워합니다. 악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합니다.”(“New Verse Is Written for Popular Song,” 1978년 4월 1일자 *Church News*, 16쪽)

이 노래의 4번째 절은 1957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초등학교 합창단이 부르도록 지어졌다. 현재 사용하는 찬송가를 출판하기 전에 본부 음악 위원회와 협의부는 추가 구절이 공식적으로는 노래의 일부가 아니라고 결정했고, 그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어린이 노래책이 제작되었을 때, 초등학교 본부 위원회는 4번째 절을 포함하기로 했다. 네 절로 편곡된 노래는 국

제판 어린이 노래책에 20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4절은 다음과 같다.

4. 난 하나님의 자녀
주 약속하셨네
끝까지 제명 지키면
해의 영광 언네

이 찬송가는 처음 1969년에 출판된 어린이 노래책 *Sing with Me*에 처음 실렸고, 그 후 1989년 다윈 윌포드의 편곡으로 어린이 노래책에 포함되었다.

“난 하나님의 자녀”는 *Gospel Fundamentals*와 복음 원리 안내서에 있는 45개의 찬송가 및 어린이 노래 중 하나이다. 이는 교회 자료가 새로운 언어로 처음 소개될 때 “난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찬송가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전과 지침서, 기악곡이나 합창곡 또는 다른 형태로 개작된 작품, CD,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 “난 하나님의 자녀” 스티커, 그리고 그 밖의 자료들 모두 이 사랑받는 찬송가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전하며, 이 찬송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음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기 위해 문화와 환경 그리고 전통을 넘어 뻗어 나갔다.

당시 칠십인 중 한 명이었던,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1978년 이 노래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친히 ‘자기 백성을 헤아리시며’(엘마서 26:37)라고 말했고 우리 각자는 그분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저할 수 있도록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으로써 그분과 대화하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그분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특성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좀 더 그분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Tambuli*, 1978년 11월, 21쪽; *Friend*, 1978년 3월, 7쪽) ■

편지 요청

10 월호 리아호나는 특별히 교회의 새로운 회원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리아호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이번 특집호의 정보와 기사들은 어떤 면에서 유익했습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회원이라면, 교회에 대해 좀 더 배우기 위해 이 잡지를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여러분이 오래된 회원이라면, 최근 개종자들을 돕기 위해 이 잡지를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이번 특집호를 활용함으로써 저희와 나누고 싶은 특별한 경험을 얻으셨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New Member Issue”를 분명히 기재하시고 2007년 2월 15일까지 lia-hona@ldschurch.org 또는 *Liahona* Editorial,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윗부분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와드, 스테이크(또는 지부나 지방부)를 기재해 주십시오. ■

2007년 1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7년 1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친구들의 친4쪽과 친5쪽에 있는 “두려워 말라”를 참조한다.

1.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은 기도할 때 강화된다.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의 승인을 받아 와드나 지부의 형제를 한 명 초대해 조셉 스미스를 떠올리는 간단한 복장을 하고 첫번째 시현(조셉 스미스-역사1:5~20)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그에게 조셉 스미스가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신앙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또한 조셉 스미스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 숲으로 들어가기로 한 결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초대된 형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반주자가 “요셉 스미스의 첫 번째 기도”(찬송가 24장)나 선지자에 관한 다른 찬송가를 배경 음악으로 조용히 연주하도록 한다. 초대된 형제에게 조셉 스미스와 기도의 힘에 대한 간증을 나눠 주기를 부탁한다. 아이들이 찬송가 “요셉 스미스의 첫 번째 기도”를 함께 부르도록 한다.

2.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다. 그분은 내가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 준다. 그것이 얼마나 작은지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돌아다니며 보여 준다. (만약 겨자씨를 구할 수 없다면, 자라서 옥수수대가 되는 옥수수 알갱이처럼, 나중에 커지는 다른 종류의 씨를 선택한다.) 어린이들에게 누가복음 17장 5~6절을 펴 보게 하고 함께 읽는다. 신앙을 키우기를 원했던 사도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전의 내용을 다시 말한다. 예수는 그들에게 심지어 작은 신앙도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다고 말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1906~2004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클리 회장님은 종종 더 큰 신앙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 신앙은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복음 원리, 우리가 사는 방식의 결과입니다.”(“우리 선지자들의 신앙”,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26쪽)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을 키우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키울 때,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라”(찬송가 191장)를 부른다. 각각의 어린이들에게 종이와 연필 또는 크레용을 준다. 종이를 4등분 하여 접게 한다.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계명 네 가지를 그림으로 그리도록 한다. (“그리기 활동”,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년], 166~167쪽)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그릴지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반주자가 침례, 기도, 십일조 등등의 특정 계명에 대한 그 밖의 초등학교 노래 몇 곡을 연주하게 한다.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함께 나누도록 한다. 신앙을 갖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한다. 주님에 대한 신앙이 그분의 계명

을 지킬 수 있는 도움이 되었던 때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여러분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 간증한다.

3. 노래 발표: “신앙으로 주님 따르리”(리아호나, 2003년 2월호, 친16쪽; 또는 신앙으로 주님 따르리: 함께 나누는 시간과 어린이 성찬식 발표회를 위한 2007년 개요 [2006년], 11쪽) 노래 “신앙으로 주님 따르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중 몇 가지를 나열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칠판에 1, 2, 3, 4를 적는다. (한 주에 한 절씩 가르치기 위해 노래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해도 좋다. 네 개의 숫자 모두 칠판에 적고, 첫 주에는 처음 두 개의 축복만을 가르친다.) 어린이들에게 첫 번째 축복에 대해 들어 보라고 한다. “어려서 주님의 참된 길 가르쳐 축복을 주신 주”를 부르고 “바른 길 친구 전하여 증언하면서 살겠네” 부분은 ‘라라라’로 부른다. 어린이들이 대답하면 답을 칠판에 적은 후 “참된 길 가르쳐 축복”이라고 적는다. 같은 방법으로 “주 도움 구하면 나에게 힘을 주어 축복을 주신 주”를 부르고 나머지 부분은 “라라라”로 부른다. 같은 방식으로 “주 도움 구하면 나에게 힘을 주어 축복을 주신 주”에서 “힘을 주어 축복”이라는 부분을 찾아낸다. 축복에 대해 더 알려 주기 위해 “음음음”으로 부른 부분을 설명해 준다. (나머지 두 가지 축복은 다음과 같다. 주 사랑 느끼게 [함], 내 모든 일 축복)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는지 말해 준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한다. ■

2007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및 공과 **교재 소개**

2007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이하여 교회 본부에서는 2007년을 위한 새로운 상호 향상 모임 주제를 발표했다. 초등회 어린이들을 위한 ‘2007년 함께 나누는 시간과 어린이 성찬식 발표를 위한 개요’도 나왔다. 멜기세덱 신권과 상호부조회를 위한 주일학교 공과 교재도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많은 것들이 새롭게 바뀌었지만 영원히 참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2007년부터 접하게 될 ‘새롭고도 영원한 것들’을 소개한다.

2007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교리와 성약 121:45)

전세계의 후기 성도 청소년들에게 주어질 메시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서 절망에 젖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같다. 어떤 시대보다도 많은 불안과 절망 앞에 노출돼 있는 오늘날의 교회 청소년들을 위한 이 주제는 ‘자신감’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 본부 청남 및 청녀 회장단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청소년들이 상호 향상 모임의 새로운 주제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전했다. 또한 제일회장단은 청남 및 청녀 지도자들이 상호 향상 모임 개회 순서와 그 외 청소년 활동에서 이 주제를 강조할 것을 권고했다.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아호나 2007년 1월호 본문 ‘진정한 자신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초등회 함께 나누는 시간과 성찬식 발표를 위한 주제



“또 보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시나니, 이는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구원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려 하심

이라.” (모사이야서 3:9)

올해 초등회의 주제는 모사이야서 3장 9절을 바탕으로 한 “신앙으로 주님 따르라”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신앙을 실천하려는 결심을 강화하도록 돕는 데 이번 주제의 목적이 있다. 전세계의 초등회 회장단은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 이 주제를 가르칠 수 있다. 또한 2007년 성찬식 발표에서 이 주제를 통해서 초등회 어린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선보일 수 있다.

신권회/상호부조회



2007년에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멜기세덱 신권 형제들은 주일학교에서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가르침을 배우게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사람이나는 것입니다.”라는 그의 말처럼 김볼 회장은 일찍이 ‘행동하는 사람’으로 불렸다. 후기 성도에게는 하나의 경구(警句)가 된 “걸음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란 말도 그

의 행동하는 사람으로서의 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

김볼 회장은 1973년부터 1985년까지 교회의 제12대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우리들이 복음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이고 영감적인 권고를 남겼다. 또한 그는 일생 동안 복음을 실천하는 일에 대해 전세계의 회원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교사들은 김볼 회장의 가르침과 경전을 통해 반원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김볼 회장의 가르침을 읽고 그 의미와 적용에 대해 토론하는 데 공과의 상당 부분을 할애할 수 있다. 반원들 역시 일요일 공과 시간 전에 각 장을 공부함으로써 공과에 더 잘 참여하고, 서로를 교화할 수 있다.

복음 교리반



2007년에 복음 교리반은 신약전서를 배우게 된다. 신약전서에 대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다음 말씀은 왜 우리가 신약전서를

공부해야 하는지 알게 한다. “신약전서의 모든 메시지는 인간의 영혼에 깨우침의 영을 가져다줍니다. 절망의 그늘이 소망의 빛으로 인해 사라지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앎으로써 군중 속에서의 고독감이 사라집니다.” 교사와 반원들은 토론 수업을 통해 신약전서에 담긴 복음 원리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 있다. ■

“참으로 감추인 보화도 찾으리니”

학교에서 군대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지혜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는 그 어떤 말씀보다 감동적이다.

류기인, 서울 영등 스테이크 성남 와드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저는 건축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침례 받은 지 2년째였는데 교회의 여러 계명, 그 중에서도 지혜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40대 중반의 일용직 근무자 한 명과 며칠 동안 함께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함께 일한 지 며칠, 그분은 쉬는 시간이 되면 항상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어느 날, 담배 냄새를 피해 늘 멍뚱뚱 서 있던 저에게 그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류 주임님은 담배를 안 피우시나 봐요.”

전 약간의 농담을 섞어 “술, 담배, 커피는 물론이고 마약도 안 합니다.”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선 그런 교회를 알고 있다고 말했고, 바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이며 제가 그 교회의 회원이란 말 등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됐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담임 선생님의 성함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분의 중학교 시절이라면 30년 전쯤, 그 시절에 이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던 회원이라면... 제가 궁금증을 참지 못해 담임 선생님의 존함을 기억하는지 물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기억하죠. 조만구 선생님이라고.”



네. 바로 그랬습니다. 그분의 30년 전 담임선생님은 지금 서울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조만구 회장님이셨습니다. 저와 그분은 유쾌하게 웃으며 조만구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훌륭한 교회 지도자라는 말을 그분에게 들려드렸고, 숙제 검사 후 사인을 하실 때 항상 ‘10009’라는 숫자를 적어 놓으셨다는 재미있는 추억담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담배 하나로 시작되었지만 그 이야기가 커져서 교회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하게 된 것이 제게는 무척 즐겁고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 제가 후기 성도란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홍세형, 광주 스테이크 침단 지부



1995년 늦가을, 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를 했습니다. 군 제대 후 선교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저로서는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혜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병으로서 맞

이하는 첫 회식. 선임병들과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저는 회식 전날부터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 침상에 누워 천정 한가운데 있는 환한 불빛을 보면서 지혜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는 의로운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회식 날이 되었습니다. 모두 거나하게 취한 가운데 선임병들은 신병들에게 술잔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의 선임병이 제게도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어떻게 거절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 신병들의 장기자랑을 보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전 바로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에 얼른 중앙으로 뛰어나가 춤과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어느새 회식은 무르익었고, 저는 술 권하는 분위기에서 잠시 비켜날 수 있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훌륭히 지키는 가운데 군에서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도 드디어 병장 진급 테스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테스트의 마지막 단계는 체력장으로 부대를 크게 한 바퀴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힘차게 달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 명 두 명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충실히 지켰던 저는 ‘준비된 것은 반드시 쓰인다.’는 말처럼 결국 1등으로 체력장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지치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건강한

신체에 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에 대해 더욱 굳건한 간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재원, 시애틀 뉴포트 와드



제가 처음 교회를 알게 된 것은 1971년, 아직 고등학교 생일 때였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접하게 되었지만 저는 당시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나게 될 인연은 꼭 다시 만난다고 했던가요? 그 후 10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다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1980년 6월 7일에 친형님과 함께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의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종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친구들은 반가운 마음에 너도나도 술잔을 권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는 거들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제 머리 위에 술을 붓는 등 짓궂은 장난을 쳤지만 제 마음은 편하기만 했습니다. 그 후에도 가족 모임이나 아버지의 회갑 잔치 등 술의 유혹을 받았던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주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기 위해 술잔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계명을 충실히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의의 길을 걸을 때 주께서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승훈, 수원 스테이크 신갈 와드



몇 년 전 어떤 대학에서 직장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에 등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날 수업이 끝난 뒤, 교수님은 수강생들을 모두 데리고 술집으로 갔습니다. 동그런 원탁에 교수님과 수강생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의 바로 왼쪽에 앉았습니다. 교수님은 일명 '폭탄주'라는 걸 만들어 먼저 마신 뒤, 모든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술을 오른쪽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드셔야 합니다. 만약 이 술을 들지 않으면 벌칙이 있습니다. 벌금을 내야 하고 벌도 받아야 합니다.”

술잔이 돌아가는 가운데 교수님의 오른쪽부터 한 바퀴 돌아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술잔을 집어 들고 그 자리에 함께한 회중들에게 약 30초 내외의 짧은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좋은 분위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가 이 술을 마시기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뜻한 바가 있어서 교회에 다닌 뒤부터 지금까지 약 20여년간 술, 담배, 커피 등을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이러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이 술을 마시지 않고, 벌을 받고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술잔을 내려놓은 뒤, 벌금을 내려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이 제 술잔을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벌금은 안 내도 됩니다. 저는 신념이 확실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선생님의 술은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서 그는 제 술을 대신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저는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모든 모임이 끝난 뒤 술에 취한 그 교수님을 부축하여 택시를 잡으려고 가는데, 그가 제게 몸을 기댄 가운데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참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이 나이에 이르도록 아직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관련하여 그날은 참으로 유쾌한 경험을 한 날이었습니다.

최흥기, 부산 스테이크 연산 와드



2004년 여름, 저는 취사병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중대 회식 때문에 취사병들은 아침부터 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회식이 시작되었고 저는 구석에서 고기와 음료수만 먹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중대장님이 저를 불러서, 취사병들이 수고가 많았다며 직접 술을 따라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중대장님이 건넨 술을 거절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술 마시던데 너는 왜 안마시냐?”

제가 계속해서 거절했기 때문에 화가 난 중대장님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영창으로 보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영창은 군인들이라면 다들 무서워하는 곳이었지만 저는 교회와 부모님에게서 배운 원리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두렵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중대장님이 저를 중대장실로 불렀고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하는 생각으로 중대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중대장님이 저에게 한 말은 예상과는 무척 다른 것이었습니다. 중대장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제의 일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신념을 지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중대장님은 저를 더 신뢰해 주셨고 남은 군 생활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지혜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축복에 대한 간증을 얻었고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지금은(이 글을 쓸 당시 최흥기 형제는 전임 선교사로 대전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구도자들에게 지혜의 말씀에 대해 가르칠 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지킬 때 뼈에 골수를, 배꼽에 건강을, 감추인 보화인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젊음은 그 자체로 하나의 빛이다!”

전국 청년 음악제가 있었던 11월 25일, 대전 우송 예술회관은 추위를 녹이는 젊음의 열기가 가득했다. 그 빛나는 젊음, 그 뜨거운 열정을 모임에 참여했던 청년 독신들의 후기와 함께 소개한다.

양 손을 올리며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환하게 웃으면서 ‘하아아~’ 하는 맑고 청명한 하품 소리와 함께 손을 내리기. 서울 서 중교 교육원의 독특한 발성 연습이다. 이 특이한 발성 연습은 처음 합창을 시작할 때만 해도 민망해서 키득키득 웃다가 무안당하기 일쑤였지만 굳어있는 우리의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 데 제격이라는 것을 몸소 알게 되면서 곧잘 따라 하곤 했을 뿐만 아니라, 음악제 당일에도 사람들이 보곤 말건 로비에 모여 이 독특한 발성 연습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우리는 음악제에서 ‘봄’을 맡아 시작의 이미지를 주는 ‘침례’와 ‘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를 편곡해서 준비했는데, 첫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우리는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대전에 일찍 도착하지 못해서 지휘자와 담당자들이 리허설을 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우리는 로비 계단을 무대로 삼아 연습을 해야 했다. 드디어 무대 뒤! 여름이 끝나갈 무렵, 함께 모여서 화음을 만들어 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참여 인원은 매주 들쭉날쭉이었고, 인천이나 수원지역의 독신들이 신촌까지 오는 일도 만만찮은 일이었다. 정말 음악제를 하는 것인가 하는 시간들이 지나고 무대 뒤에 서 있을 때의 감회란... 사실 긴장뿐이었다.

두 곡을 부르는 우리의 공연은 채 15분도 되지 않았다. 이 15분을 위해 우리 독신들은 황금같은 토요일 저녁을 희생하며 함께 모이고, 모이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격려하면서 하나가 되었다. 우리 모두가 공연자가 되기도 하고 관객이 되기도 하면서 이 음악제를 즐겼다. 준비 과정에서도, 공연장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미흡한 점도 우리의 일부분이며, 이것은 우리의 축제였으

조셉 스미스의 순교를 표현한 연극, ‘가을처럼’.
왼쪽부터 강봉균 형제, 강인웅 형제.

로 즐길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도로 우리의 도전과제를 하나 마친 기분은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

✽ 서울 서 중교 교육원, 이상미 자매 ✽

전 국 독신들의 화합을 목적으로 독신 문화 축제의 첫발을 중부 중교 교육원에서 준비하며 몇 년 전 고원용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내 떠올랐다.

“부름은 큰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주어진다.”

부족한 능력으로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며 어렵게 받아들이는 교회 부름처럼 전국 단위의 모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하기에 너무나 큰 사이즈의 부름같이 느껴졌다. 음악적 재능도 부족했을 뿐더러 없는 시간을 쪼개어 연습에 참여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고 합창 연습에 참여하는 독신들이 잘 따라 주지 않을 때는 혼자서 속상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 속에 힘들고 지친 마음이 들 때 올바른 목적을 잃지 않고 숙연한 마음이 들게 만들었던 것은 희생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공연 당일에는 긴장된 마음에 무대에서 실수하고 시간 부족으로 충분한 리허설 없이, 리허설이 실전이 되고 실전이 리허설이 되기도 했지만 진땀나는 돌발 상황에서도 무대에 오른 각 지역 독신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몽클해져 왔다.

진행 도우미로서 객석이 아닌 무대 커튼 사이에서 가까이 지켜보며 독신 하나 하나의 빛나는 눈동자와 진지한 자세,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신중함을 떨어뜨리지 않는 모습을 보며 단순한 화음의 합창이 아닌 강한 신앙의 의지처럼 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중부 중교 교육원, 이효선 자매 ✽

전 국 청년 예술제. 되새겨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 편에 잔잔한 울림이 전해 온다. 그 울림은 전국 청년들의 열정이며, 숨길 수 없는 재능이며, 사랑 그리고 우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우리가 표현해 내야 하는 것은 바로 ‘가을’ 성숙함으로 거듭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가을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독신들은 아이디어를 짜내고, 연습 일정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거리가 멀다는 지역상의 특성을 고려해 대구 스테이크는 합



- 1. 광주 종교 교육원 청년들의 열정적인 무대
- 2. 서울 서 종교 교육원 청년들의 합창. 자매들의 의상이 특색있었다.
- 3. 서울 동 종교 교육원의 활기찬 공연
- 4. 부산 종교 교육원의 합창
- 5. 중부 종교 교육원의 합창

히 간직하고 기억할 것이다.

※ 부산 종교 교육원, 이인주 자매 ※

한창 무더웠던 8월 둘째 주 안식일에 처음 시작된 합창 연습은 선선해진 10월부터는 매주 안식일에 연습이 진행되었다. 각자의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받은 부름과 여러 모임 등으로 바쁘고 피곤한 안식일에 이뤄지는 연습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신들은 서로 다른 파트의 소리가 어우러져 조화를 이뤄 내는 합창의 매력에 푹 빠져 오후 3시에 시작된 연습은 저녁 8시, 9시가 넘은 시각에 끝나는 일이 다반사였다. 11월 18일 토요일 신당 와드에서 티셔츠 페인팅과 바비큐 파티, 리허설을 하였고, 11월 19일 안식일에는 연습에 앞서 합창 연습을 통해 얻은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최종 리허설도 이뤄졌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 여러 친구들을 사귀고 그 과정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는 준비 과정에 더 큰 의의가 있다는 고원용 장로님의 말씀처럼, 동 종교 교육원 독신들은 음악제를 통해서 겸손, 희생, 끊임없는 노력, 헌신, 열정, 선함, 최선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함 등의 가치를 서로의 모습을 통해 보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후기 성도 젊은이로서의 간증을 키우는,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하였다.

※ 동 종교 교육원, 이지은 자매 ※

독신 음악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인원 동원이었다. 고심하던 광주 종교 교육원 독신들은, 음악과 춤에 관심 있는 저 활동 회원들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연락했을 때 그들이 함께 하겠다, 라고 대답했으며, 실제로 무대에서 함께 공연을 할 수 있었다. 이번 독신 음악제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기쁨은 바로 독신들의 우정 증진이라는 생각이 든다.

드디어 발표날. 음악상의 문제로 형제들 몇 분이 무대 위에서 가만히 서 있어야 하는 당황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독신들이 모여 준비하였기에 의견 충돌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매일 밤 모기와 싸우며 음악을 선정하던 여름, 단풍 구경도 잊은 채 춤 동작을 만들던 가을, 찬 교회 바다에 엎드려 춤을 연습하던 겨울. 광주 스테이크 독신들은 이렇게 매일 밤을 함께하였기에 아무런 연습을 하지 않는 지금의 밤이 너무 외롭다고 입을 모은다.

※ 광주 종교 교육원, 최진 자매 ※ ■

창을 준비하고 부산과 부산 서, 마산 지역이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가을처럼'을 발표하기로 했다.

오랜 연습을 끝내고, 드디어 예술제가 있던 날. 독신들은 새벽잠을 설치며 대전으로 향했다.

막상 도착하니 분주하고 바쁜 일정으로 리허설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무대에 오르게 되어서 걱정도 있었지만, 막이 오르고 피아노가 첫 음을 내면서부터 독신들은 하나된 목소리와 마음으로 관객과 무대에 선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합창과 연극을 발표했다. 감동적인 무대가 막을 내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우리들은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부산 종교 교육원 청년들이 한 주 한 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완성해 갔던 합창과 연극은 예술제 무대에 오르는 데 의미를 두기 이전에 서로의 사랑과 우정을 확인하고, 완성해 가는 하나의 만남으로 가슴속에 새겨졌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였다. 그것은 우리 후기 성도 청년들 가슴속의 특별한 울림이였다. 우리 청년들은 그 울림을 영원



가야금과 해금이 어우러진 기악 연주. 왼쪽부터 조민지 자매, 이유나 자매

가족 및 교회 역사부를 가다

“이 교회의 초기부터 교회 회원들은 자신의 조상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고든 비 헝클리 회장 -

2006년 10월 교회 조직 가운데 독립된 조직인 '가족 및 교회 역사부'가 설립되었다. 부서 이름은 생소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교회에서 자주 들어 봤음직한 단어들로 구성된 '가족 및 교회 역사부'는 향후 한국의 가족 역사 사업과 성전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조직이다. '가족 및 교회 역사부'의 책임을 맡은 홍하식 형제를 만나기 위해 11월 어느 날, 서울 성전 내에 위치한 사무실(구 서울 성전 유아 대기실)을 찾았다.

하나로 묶다

“가족 및 교회 역사부는 회원들이 조상을 찾고, 찾은 조상을 하나의 가족으로 연계시킨 후, 그분들이 성전 의식을 받음으로 인해 하늘과 지상에 있는 가족들을 하나로 묶는 일을 돕는 곳입니다.” 홍하식 형제는 '가족 및 교회 역사부'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하나로 묶는'이란 말에 유독 힘을 준다. 신권 지도자들은 영적인 지원을, '가족 및 교회 역사부'는 현재 회원들이 가족 역사 사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교육, 도구 등의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항해에는 나침반이 필요하듯,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조상들을 찾아야 하는 가족 역사 사업이라는 긴 항해 역시 나침반이 필요하다. 그 나침반의 역할을 '가족 및 교회 역사부'가 수행한다.

문은 열려 있다

그렇다면 '가족 및 교회 역사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홍하식 형제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사무실의 문은 언제라도 열려 있지만, 최근에 배포된 지침서에 명시된 것처럼 앞으로는 와드의 가

족 역사 상담자'가 주축이 되어 가족 역사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가족 및 교회 역사부'는 가족 역사 사업의 핵심이 되는 와드 가족 역사 상담자의 교육에도 많은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향후 가족 역사 사업과 성전에서 의식을 받기 위한 절차가 현재 교회 본부에서 준비 중인 새로운 FamilySearch 웹사이트로 바뀔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 이용 등의 실무 교육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 홍하식 형제의 생각이다. 홍하식 형제는 사무실 내의 여러 컴퓨터를 가리키며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회원들이 언제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콜센터를 개설 준비 중입니다. 회원들이 와드 가족 역사 상담자를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혹은 담당자와의 대화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홍 형제의 말은 회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 홍하식 형제는 현재 전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리고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질 '봉사 선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봉사 선교사는 전임 선교사와 달리 개인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일주일에 본인이 정한 시간만큼 주님의 사업을 위해 봉사한다. “우리나라는 가족 역사 사업을 하기에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률도 높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족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보 사업과 족보에 이미 많은 경험을 가지신 경륜이 있는 회원들과 컴퓨터를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젊은 회원들 모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훌륭한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 성도들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자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조상들이 기다리고 있다

홍하식 형제는 IT 관련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재원이었다.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던 홍 형제가 '가족 및 교회 역사부'를 선택하게 된 것은 봉사에 대한 소망과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간증 때문이었다. 영의 세계에서 의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수많은 다른 주님의 자녀들을 선택된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노력과 희생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경전과 선지자의 말씀을 상고하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는 홍하식 형제. 홍 형제는 “전임 선교사가 살아 있는 한 명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과 우리가 가족 역사 사업을 통해 돌아가신 한 명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같은 일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지상에서와 같이 선교 사업이 이루어지겠지만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은 이 지상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IT 업계에서 배운 모든 기술과 경험들이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기회라고 생각하는 홍하식 형제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는 회원들의 가족 역사 사업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친다. ■

'가족 역사 지원부'는 현재 화-금 (09:00-19:00), 토(08:00-14:00)까지 가족 역사 관련 지원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 스테이크

■ 스테이크 대회 - 광주 스테이크 대회가 11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 스테이크 예술제 - 11월 18일,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토요일 밤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예술제가 있었다. 재능 있는 회원들의 참여와 많은 회원들의 수고로 예술제는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었다.

대구 스테이크 가을 음악회

■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에서는 배덕수 스테이크 회장의 감리로 가을의 정취와 향운을 느낄 수 있는 '가을 음악회'가 열렸다.



부산 서 지방부

■ 지방부 대회 - 10월 21일과 22일에 걸쳐 송평중 부산 선교부 회장의 감리로 지방부 대회가 진행되었다.

■ 부산 서 지방부 청년 창립 기념일 행사 - 2006년 11월 18일 부산 서 지방



부 대신 지부에서는 지방부 회장단 1보 좌인 안종원 회장의 감리로 청년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었다.

서울 남 스테이크 사랑의 김장 담그기

■ 11월 25일 서울 남 스테이크 동작 와드 활동실에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있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는 스테이크 내에 있는 어려운 회원들과 전임 선교사 그리고 김치를 필요로 하는 회원들을 위해 마련된 행사다.



■ 영등포 와드 건축 기공식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 문형범 형제 '골든벨'을 울리다 - 지난 10월 15일 춘천 와드의 청남인 문형범 형제가 KBS '도전! 골든벨'에서 골든벨을 울리는 영예를 안았다.

■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 - 11월 4일 훌라춤, 요가 등 상호부조회 회원들의 다양한 재능을 뽐낸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가 있었다.

서울 북 스테이크

■ 서울 북 스테이크 청년 창립 기념일 행사 - 11월 19일 토요일에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에서는 청년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었다. 이날 일산 와드의 김하애 자매(고3)는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의 가치관 활동을 모두 달성하여 손병호 스테이크 회

장으로부터 청년 메달을 수여받았다.



■ 진경섭 형제 '제30회 청백봉사상' 수상 - 신촌 와드의 진경섭 형제가 지방 공직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청백봉사상'을 수상했다.

서울 스테이크

■ 허정훈 형제 가족 '다복상 수상' - 서울 중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제1회 중구 다복왕 선발대회'에서 신당 와드의 허정훈 형제 가족이 수상하게 되었다.

안양 스테이크

■ 청년 창립 기념 행사 - 11월 18일, 청년 창립 기념 행사는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의 가치관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로 꾸며졌다.

제주 지방부

■ 음악의 밤 - 11월 11일 제주 지방부에서는 제주도의 모든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늦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의 밤 모임이 있었다.

바로잡습니다

2006년 12월 리아호나 지역 소식 '새로운 개종 이야기'의 본문 중에 고혜자 자매의 지부가 '대신 지부'로 표기된 것을 '괴정 지부'로 바로잡습니다. ■

2007년 후기 성도 헌혈 행사



“헌혈합시다!”

2007년 헌혈 행사의 일정이 발표됐다. ‘사랑 나눔의 실천’이라고 불리는 헌혈은 교회가 오랫동안 참여해 오고 있는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의 일환이다. 매년 전국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헌혈은 이제 후기 성도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이 행사는 혈액

을 수입하고 있는 한국의 실정에서 헌혈 인구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큰 의미는 헌혈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시대의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자신의 저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진실로 위대한 사람은 자기 삶의 일부와 시간을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중략)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때입니다.”

헌혈은 그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나 육체의 희생이 따른다는 점에서 진정한 봉사로 불린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후기 성도 회원들의 많은 참여 속에 성황을 이뤘던 지난 수 년 간의 헌혈 행사처럼 올해도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순간, 2007년 후기 성도 헌혈 행사는 2007년 2월 중 토요일 오후에 열린다. 참가 희망자는 와드나 스테이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교회 소개, 시사 뉴스 저널에 실리다

월간 잡지 시사 뉴스 저널 12월호에 다섯 페이지에 걸쳐 자세한 교회 관련 기사가 실렸다.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대전 스테이크

삼성 와드 감독: 문황업(전임: 배상정)

서울 강서 스테이크

신월 와드 감독: 정해원(전임: 하현수)

브리검 영 대학교 MBA 과정 설명회 및 BYU 메리어트 경영 대학원 한국 GMS 창립 모임



지난 11월 10일 저녁, 신당 와드에서 브리검 영 대학교 MBA 과정 입학 설명회가 열렸다. 서울 지역, 포항, 제주, 대구 등 전국에서 모인 20여 명의 입학 희망자들은, 이날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온 MBA 학생 모집 담당자 브링커호프 형제와 MBA 학과장 스타이스 교수에게서 직접 메리어트 경영 대학원 소개와 MBA 과정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브리검 영 대학교 MBA 과정 수료의 목적은 “준비된 학생들을 교육하고 신앙을 강화하여 회원과 교회의 발전은 물론 사회 전반을 위한 축복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브리검 영 대학교 MBA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에 돌아온 졸업생들이 직접 유학 경험과 그곳에서 얻은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LG전자 부사장인 김영기 형제는 브리검 영 대학교가 가르치는 직업 윤리가 전세계에서 환영과 인정을 받고 있으며, “MBA 과정을 통해 이런 BYU의 혼을 배운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입학 설명회 후, BYU 메리어트 경영 대학원 한국 GMS(Global Management Society) 설립식을 가졌다. BYU 관련 인사들이 모여 전세계 사회에 윤리 경영 문화를 전하고 의로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활동하는 BYU 메리어트 경영 대학원 GMS는 이미 미국 및 세계 여러 곳에서 활성화된 조직이다. 이날 초대 회장으로 내정된 신용인 회장은 BYU 메리어트 경영 대학원 한국 GMS의 활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윤리 가치관을 한국 재계는 물론 사회 전체에 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 지역 복지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김용일 장로는 축하 인사에서 “지금 BYU에는 이천여 명의 한국 회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BYU에서 훌륭하게 성장하여 모두 한국으로 돌아 왔을 때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얼마나 발전하게 될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행복해집니다.”라며 BYU 정신과 한국 학생들이 학교 교회 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축복에 대해 감사를 표현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지역 칠십인 이용환 장로와 한국 관리본부 대표 최윤환 형제, 공보 위원회 위원장 최석구 형제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사 제공 황미주 자매>

GMS 인터넷 주소: <http://cafe.daum.net/BYUGMS> ■